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人間失格』 고찰

- 요조(葉藏)의 自意識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 教育專攻

夫 徑 希

2007 年 月

다자이오사무(太宰治)의

『人間失格』 고찰

- 요조(葉藏)의 自意識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成 俸

夫 徑 希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 年 月

夫徑希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 年 月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自意識의 형성배경	4
1. 外的 배경	4
1) 가정환경	4
2) 모성애의 결핍	8
3) 부성애의 결핍	12
2. 內的 배경	19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19
2) 트라우마(trauma)	21
III. 自意識의 표출양상	25
1. 「道化」	25
2. 자기파괴	32
3. 여성편력	35
IV. 自意識에서 본 「世間」	40
V. 결론	53
참고문헌	56

ABSTRACT

<국문 초록>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人間失格』 고찰

- 요조(葉藏)의 自意識을 중심으로 -

夫 徑 希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成 俸

다자이 오사무(太宰治)는 戰後 혼란기에 기성윤리와 문학에 반역하는 작품을 추구한 무뢰파(無瀨派) 작가이다. 패전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예고이즘, 위선, 인색함에 절망하여 철저한 자기부정, 자기파괴의 下流志向의 삶을 살았으며,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했다. 그의 죽음 직전에 쓰여진 『人間失格』은 다자이의 자서전적 작품으로 戰後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의 내부를 파헤쳐 현대인의 정신적 고뇌와 진실을 이야기 한다. 다자이는 『人間失格』의 주인공 요조(葉藏)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결여감과 소외의식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알고자 했던 ‘진실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인간과 「世間」에 대한 비판과 저항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人間失格』이 다자이의 자서전적 소설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요조의 자의식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人間失格』에서 요조는 인간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이방인이었다. 그가 인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世間」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게 된 배경에는 그의 환경적 요인인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소외감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감이 있었다. 또한 요조의 자의식 형성의 내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트라우마는 요조의 정신적, 심리적 결함을 초래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형성된 자의식은 「道化」, 자기파괴, 여자관계로 표출된다. 인간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괴로워하면서도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요조는 「道化」라는, 인간을 향한 필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모성애에 대한 결핍감은 복잡한 여성편력으로 나타나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존한 알코올과 약물로 중독의 삶을 살게 된다.

특수한 성장배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사랑에 대한 결핍감과 공포, 소외감은 요조의 자

의식 속에 자리 잡아 자신과 「世間」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자의식 과잉으로 나타난다. 이런 자의식의 과잉현상으로 요조는 자신을 인간세계와 다른 차원인 「相世界」의 인물로 규정한다. 요조의 자의식 속에는 「相世界」와 「實世界」의 대립구도가 있다. 그 속에서 자신은 「相世界」의 인물이고 「實世界」는 인간불신과 위선으로 가득 찬 「世間」의 모습이다. 요조는 「世間」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 끝에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 후 순진무구한 '신뢰의 상징'인 요시코와 결혼함으로써 「世間」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자신도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요시코의 신뢰심으로 인해 하찮은 상인에게 그녀가 유린당하자 「世間」에 대한 더 큰 공포와 불신감을 갖게 된다. 결국 「世間」의 상징인 아버지의 죽음으로 요조에겐 모든 의미를 상실한 狂人の 모습만이 남게 된다.

요조의 문제점은 자의식의 과잉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자의식의 과잉으로 「世間」은 항상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고 요조는 지나치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데서 생기는 고뇌와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결국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염원은 이룰 수 없게 되고 요조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실격자의 숙명을 보여준다.

I. 서론

다자이 오사무(太宰治:1909~1948, 이하 다자이라 칭함)는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혼란기였던 태평양 전쟁기에 활동하며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 오다 사쿠노스케(織田作之助), 이시가와 준(石川 淳), 이토 세이(伊藤 整) 등과 함께 無賴派¹⁾라 일컬어졌던 작가이다. 戰後의 혼란기에 패전이라는 현실 속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인간에 절망하며 자기 부정, 기성의 모랄에 대한 비판, 죄악 등을 주제로 한 『ヴィヨンの妻』(1947), 『斜陽』(1947), 『トカントン』(1947), 『人間失格』(1948)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1948년 6월 다마카와(玉川)上水에서 야마자키 토미에(山崎富榮)와 투신하여 39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한다.

『斜陽』에 의해 일약 유명작가의 대열에 들어선 다자이는 戰後의 인간과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의 내부를 파헤쳐 현대인의 고뇌와 주관적인 진실을 고백하는 『人間失格』을 썼다. 그의 대표작인 『人間失格』은 1948년(昭和 23), 잡지 「展望」의 6월호에 「제 1 수기」와 「제 2 수기」, 7월호에 「제 3 수기 1」, 8월호에 「제 3 수기 2」와 「후기」가 차례로 연재되었고 치쿠마쇼보(筑摩書房)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²⁾ 연재 중에 작가가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완결된 소설로서는 다자이 최후의 작품으로 그의 내면적 진실을 고백한 자서전적인 소설이다.

『人間失格』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파괴하는 下流指向的³⁾ 삶으로 내몰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 진실성의 문제와 인간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소외되어 자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인간에 대한 구애를 그리고 있다.

다자이는 이 작품의 주인공 오바 요조(大庭葉藏, 이하 요조라 칭함)를 통해 숨김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한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알고자 했던

1) 戰後 일약 유행작가가 된 太宰治, 坂口安吾, 石川 淳등을 부르는 명칭으로 다자이는 1946년에 발표한 에세이 『返事』에서 無賴派(리베르탄, リベルタン)를 선언한다. 다자이는 스스로 그의 작품 『バンドラの匣』에서 무뢰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래 이 자유사상이라는 것은 본래, 반항정신입니다. 파괴사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압제와 속박이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싹튼 것이 아니라 압제와 속박의 反動으로 그것과 동시에 발생한 투쟁 사상입니다.’

2) 三好行雄, 『太宰治必携』, 學燈社, 1981, p.129.

3) 끊임없이 자기를 破壞하고, 자신의 缺如感覺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深化시켜 감으로서 既成社會의 秩序를 反逆하여 그 질서를 內面에서부터 崩壞시키는 것으로 기성질서에 조화적인 논리인 上昇志向에 反하는 논리이다.

‘진정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인간과 「世間」⁴⁾에 대한 비판과 저항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요조는 「世間」에 융화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인간의 삶을 모르며 극도로 인간을 두려워하는 인물이다. 인간을 무시 위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고 인간을 믿고 사랑하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世間」은 위선에 가득 찬 惡의 비열함과 비인간성을 노출시킨다. 결국 요조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끝내는 인간화되지 못하는 인간실격자의 비극적 인물로 그려진다.

여기서 주인공 요조는 다자이 자신이 작품을 읽고 있는 ‘나’의 모습이며 약하고, 흔들리는 영혼을 가진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통용되는 보편성과 공통성일 것이다.

지금까지 『人間失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人間失格』의 문학적 평가는 크게 야나기다 도모쓰네(柳田知常)가 이야기하는 ‘과도한 관념성과 비예술성’, 오다기리 스스무(小田切進)의 ‘결국, 관념적인 자기도취의 노래’ 등의 부정적인 평가와 다자이 연구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오쿠노 다케오(奥野健男)의 ‘불후의 걸작’, ‘다자이 문학의 총결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나눌 수 있다.⁵⁾ 다자이의 문학처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전적으로 긍정하려는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보기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대변해 주는 작품으로서 『人間失格』은 끊임없이 새로운 독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겪었을 진실된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와 「世間」에 대한 절실한 문제제기를 통해 『人間失格』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자이는 39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작가지만 그 삶의 치열함과 특수성으로 인해 그의 작품 이외에도 다자이라는 작가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그의 작품 대부분이 작가의 사상과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私小説의 요인들을 많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그의 작품을 논할 때 작가에 대한 언급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人間失格』은 그의 죽음 바로 직전

4) 세상, 인간 세계 또는 자신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世の中の 뜻으로 쓰일 때도 있으나. 이는 자기가 보는 주변 사회를 뜻하므로 世の中 보다 범위가 좁다. 본고에서는 요조의 자의식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 인간세계라는 의미로 작품 속의 「世間」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자 한다.

5) 三好行雄, 『太宰治必携』, 學燈社, 1981, p.129.

에 쓰여진 유서와도 같은 작품이므로 좀 더 심도있는 고찰을 위해 작가와 작품을 동시에 아우르는 입장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人間失格』이 다자이의 자서전적 소설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요조의 자의식⁶⁾ 형성에 바탕이 되는 여러 요인을 살펴보고 「世間」에서 자의식이 표출되는 양상, 요조의 자의식을 통해 보여지는 「世間」의 모습과 그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로는 『太宰治全集第九卷』(太宰治, 筑摩書房, 1980)을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 인용된 텍스트의 한국어 번역은 『인간실격·사양』(다자이 오사무 지음, 오유리 옮김, 문예출판사, 2003)을 인용하였다.



6) 경험의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에 수반되어 그것을 통일하는自我에 대해 갖는 반성의식의 총칭. 외계의 의식과 대립하여, 자아가 자기를 느끼고, 생각하고, 意志하고, 행위하는 다양한 작용을 통일하는 自己同一의인 주체로서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II. 自意識의 형성배경

『人間失格』의 주인공 요조는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낙오자이다.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의해 생겨나는 연대감을 상실한 채 고독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인식 때문에 귀속할 거처를 잃고 스스로 인간세계의 이방인으로 설정하게 된다. 거기에는 자신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존재라는 자기소외의식이 요조의 자의식의 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요조의 자의식의 형성의 외적배경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과 내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을 통해 요조의 자의식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外的 배경

1) 가정환경

가정환경이 개인의 성격과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인정되어 왔다. 특히 유년기의 가정환경은 다른 어떤 환경에 비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유년기는 한 사람의 자의식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유년기의 자아의 발생은 주변 세계와 맞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이때의 가정환경은 성인이 된 뒤의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행동 이해의 기초로서 가정환경요인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⁷⁾ 특히 다자이의 경우,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한 요인으로 그의 생가와 가정환경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자이의 유년기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그의 생가인 쓰시마가(津島家)는 쓰가루(津輕)굴지의 명문가로, 다자이가 태어날 당시에 부친인 쓰시마겐우에몬(津島源右衛門)이 다액납세자로 인한 귀족의원이 되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다자이는 조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누나들, 숙모

7) 박재욱, 「가정환경의 심리적 요인과 자아개념 하위요인과의 관계」, 학생지도연구, 1983, p.3.

와 숙모의 딸들, 하인들을 합하여 30여명에 달하는 대가족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대지주의 봉건적인 인습이 짙게 배어있는 환경 속에서 생가의 엄격한 속박을 끊임없이 느낀다.⁸⁾ 또한 어머니가 병약하여 태어나자마자 유모와 숙모의 손에 의해 길러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10명의 자녀 중 막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숙모를 제외한 가족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의 작품 『思い出』에는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숙모에 대한 추억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무렵, 부모의 추억은 공교롭게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증조모, 조모, 아버지, 어머니, 형 세 명, 누나 네 명, 동생 한 명, 게다가 숙모와 숙모의 딸 네 명의 대가족이었지만, 숙모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은 5, 6세가 될 때까지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해도 좋다.

叔母についての追憶はいろいろとあるが、その頃の父母の思い出は生憎と一つも待ち合わせない。曾祖母、祖母、父母、兄三人、姉四人、弟一人、それに叔母と叔母の娘四人の大家族だつた筈であるが、叔母を除いて他のひとたちの事は私も五六歳になるまでは殆ど知らずにゐたと言つてよい。⁹⁾

부권이 중심이 되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집안의 막내라는 지위는 항상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존재였으므로 다자이는 일찍부터 가족 속에서의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가족 안에서의 소외의식은 다음 예문과 같이 자신이 부모의 진짜 자식이 아니라는 망상으로 나타난다.

나는 어렸을 적, 이상하게 비뚤어져서 자신이 부모의 진짜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적이 있었다. 형제 중에서 나 혼자만이 따돌림 당한다고 여겼다.

私は子供の頃、妙にひがんで、自分を父母のほんとうの子ではないと思ひ込んでいた事があつた。兄弟中で自分ひとりだけが、のけものにされているような氣がしていた。¹⁰⁾

다자이가 철저한 봉건적, 가부장적 가정환경 속에서 “육친의 사랑을 모르는 아

8) 三枝康高, 『太宰治とその周辺』, 有信堂, 1975, p.15.

9) 太宰治, 「思い出」, 『太宰治全集第一巻』, 筑摩書房, 1980, p.24.

10) 相馬正一, 『若き日の太宰治』, 津軽書房, 1991, p.18. (재인용)

이”¹¹⁾로 자라면서 느낀 고독과 소외감은 『人間失格』의 주인공 요조의 자의식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人間失格』이 다자이의 자서전적 소설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의 이러한 가정환경은 요조의 가정환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제 1 수기」는 요조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유년기를 다루고 있다. 어린시절의 자신이 인간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道化」¹²⁾를 익히게 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나는 동북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自分は東北の田舎に生れました)”로 시작되는 출생배경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요조는 지방의 부유한 집안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리며 대가족과 많은 하인들이 함께 사는 번화한 가정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모성애의 부재와 가족과의 교류가 적은 아버지, 장남만이 중시되는 전통적, 봉건적인 가부장제하의 막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가족은 물론,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른 채 인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유년기를 보내게 된다. 여기서 그가 어린시절에 느끼는 인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밑바탕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요조와 가족간에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사실 우리 식구들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집에서는 열 명 정도 되는 식구들 모두가 각자 밥그릇을 긴 상위에 두 줄로 나란히 마주 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막내인 나는 언제나 가장 아랫자리에 앉았는데, 식사를 하는 방은 어두침침했고 점심을 먹을 때 열 명 정도 되는 식구들이 묵묵히 밥을 먹는 광경은 언제나 으스스 춥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子供の頃の自分にとって、最も苦痛の時刻は、實に、自分の家の食事の時間でした。自分の田舎の家では、十人くらゐの家族全部、めいめいのお膳を二列に向ひ合せに並べて、末つ子の自分は、もちろん一ばん下の座でしたが、その食事の部屋は薄暗く、晝ごはんの時など、十幾人の家族が、ただ黙々としてめしを食つてゐる有様には、自分はいつも肌寒い思ひをしました。(p.402)¹³⁾

11) 關井光男, 「双生兒の神話」, 『太宰治の世界』, 冬樹社, 1977, p.69.

12) 사람을 웃기는 익살스런 행동이나 말, 또는 그것을 하는 사람.

13) 太宰治, 「人間失格」, 『太宰治全集第九卷』, 筑摩書房, 1980, 이하 텍스트 인용인 경우 페이지만 표시.

어두운 방에 앉아 숨 막히고 답답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장 즐거워야 할 식사시간이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유추해보면 요조의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어두침침함’과 ‘으스스함’으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또한 장남만이 중시되는 가부장제하의 막내라는 위치로 요조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라는 자기비하에 빠지게 된다. 결국 가정은 요조의 자아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조는 수기의 序頭에 “나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自分には、人間の生活といふものが、見當つかないのです)”라고 고백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부족은 요조의 인간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자신을 자폐적 인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된다.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의 인용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들조차, 그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고 단지, 두려워했으며, (중략) 그 결과 나는 언제부터가 단 한마디도 본심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된 겁니다.

自分は子供の頃から、自分の家族の者たちに對してきへ、彼等がどんなに苦しく、またどんな事を考へて生きてゐるのか、まるでちつとも見當つかず、ただおそろしく、(中略)つまり、自分は、いつのまにやら、一言も本當の事を言はない子になつてゐたのです。(p.405)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가족관계 속에서 자라 온 요조에게 있어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어려운 일이다.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꼈음으로 가족들조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타인과 다를 것 없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갈 뿐이다. 결국 요조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안고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요조는 대가족 속에서 원만한 가족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존재가치가 없는 가부장제하의 막내라는 위치로 인한 자기비하, 가족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안에서 고독과 자기소외를 느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요조의 자의식 속에 자리 잡아 스스로를 인간세계의 이방인, 이상세계의 인물로 설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자아형성을 도와야 하는 가족들의 역할 부재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다. 가족 내에서의 고독과 소외감은 인간세계와의 친화감 상실의 원인이 되고 요조를 자폐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가정에서조차 고독과 자기소외를 느꼈다면 가정보다 더 큰 범주인 인간세계에서의 사회성 결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런 유년기를 걸친 요조가 ‘인간의 삶(人間の営み)’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실격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있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요조의 자의식 속에서 ‘가정’이란 자기소외의식의 형성 장소로서 그의 비극적 삶의 출발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모성애의 결핍

『人間失格』에는 요조의 유년기를 시작으로 그의 전 생애가 나타나 있다. 그 내용 중에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인물 즉, 아버지, 형제자매, 하인들, 교우관계, 여자들에 대한 서술이 있을 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머리말」의 유년시절 사진 속에서 요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여자들도 누나들, 여동생, 사촌들로 상상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제 1 수기」에 나타나는 요조와 가족과의 갈등양상에서 갈등관계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그의 성장배경에 어머니의 부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자이 또한 태어나자마자, 병약한 어머니로 인해 유모와 숙모의 손에서 자라게 된 성장배경이 있었다. 『思い出』에는 유년기의 추억 속에 어머니와의 단절된 체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나는 친할 수 없었다. 유모의 젖으로 자라 숙모의 품에서

자란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母に對しても私は親しめなかつた。乳母の乳で叔母の懷で大きくなつた私は、小學校の三年のときまで母を知らなかつたのである。14)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단절된 체험으로 다자이의 작품 속에는 어머니 대신 숙모와 유모에 대한 추억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한 대리모로부터 자신이 언제 또 버려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었으며 자신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렇듯 어머니라는 근원적인 존재의 부재는 자신의 뿌리를 상실한 존재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 등이 그의 작품 속에 반영되어 “나는 향락을 위해 매춘부를 산 일은 하룻밤도 없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잤었다. 잃어버린 젖가슴을 찾기 위해서 잤던 것이다”15)와 같이 작품 속의 수많은 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무런 타산도 없는 호의(何の打算もない好意)’16)인 모성에 대한 결핍감을 채우려했던 다자이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유년기의 모성애의 부재는 원초적 불안감의 원인이 된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모체 분리의 불안감이다.17) 이것은 어머니와의 정신적·육체적 교감을 통해 극복되고 비로소 인간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찍부터 어머니와의 단절을 체험하게 되면 자신을 둘러싼 외부세계에 대한 극도의 불안 심리가 형성되고 타인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 성장과정에서의 인격형성에 장애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어린시절부터 모성과의 단절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요조는 외부세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만이 이 무서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인간생활에 대한 이해부족과 세상의 일반적인 관념이나 가치관에서 동떨어져 자신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위화감에 다음과 같이 괴로워한다.

14) 太宰治, 「HUMAN LOST」, 『太宰治全集第二卷』, 筑摩書房, 1981, pp.29~30.

15) 私は享樂のために売春婦をかつたこと一夜もない。母を求めに行つたのだ。乳房を求めに行つたのだ。(「HUMAN LOST」, 『太宰治全集第二卷』, 筑摩書房, 1981, p.70.)

16) 텍스트, p.430.

17) 신현선, 「太宰治문학 속의 모성추구 고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32.

내겐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아직도 뭘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관념이 서로 엇갈린 것 같다는 불안, 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며 신음했고,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自分には、人間の営みといふものが未だに何もわかつてゐない、といふ事になりさうです。自分の幸福の觀念と、世のすべての人たちの幸福の觀念とが、まるで食ひちがつてゐるやうな不安、自分はその不安のために夜々、輾轉し、呻吟し、發狂しかけた事さへあります。

(p.403)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모성이라는 존재는 나를 둘러싼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다. 어머니라는 매개체를 통해 외부세계의 일반적인 관념, 상식을 익히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방법을 습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재는 외부세계와의 연결고리의 단절을 의미하며 세상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차단을 말한다. 그 결과,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력의 결핍으로 외부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요조의 자의식 속에는 자신만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자기소외의식이 나타난다. 어머니의 애정이 자신에게는 단혀있다는 소외감, 이로 인해 인간으로부터 따돌림당한다, 배반당한다는 감각이 형성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의식으로 자신은 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어두운 그늘에 가려진 삶을 사는 ‘어둠의 자식(日陰者)’이라고 단정짓게 된다.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는 비참한 패배자, 악덕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은데, 나는 나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몇몇하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과 만나면, 나는 진심으로 정이 갑니다.

日陰者、といふ言葉があります。人間の世に於いて、みじめな、敗者、惡徳者を指差していふ言葉のやうですが、自分は、自分を生まれた時からの日陰者のやうな氣がしてゐて、世

18) 梶木 剛, 「太宰治の基調 -母思い- 」, 『一冊講座 太宰治』, 有精堂, 1983, p.9.

間から、あれは日陰者だと指差されてゐる程のひとと逢ふと、自分は、必ず、優しい心になるのです。(p.433)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포는 대단히 큰 심리적 불안감을 가져온다. 그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소외된 자신을 태어난 순간부터 ‘어둠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세상의 어두운 부분만을 바라보게 된다. 즉 유년기 母子간의 절망적인 단층이 요조에게 ‘어둠의 자식’이라는 특수한 패배자의식을 낳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 자주 자리에 누워서 지낸 경험을 갖고 있는 요조는 선천적인 심신의 허약함을 갖고 태어났으며 이런 기질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더욱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기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던 요조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모성애에 대한 결핍감은 더욱 증폭되어가고 다음 예문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원죄의식마저 갖게 된다.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정강이에 상처 있는 놈(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뒤가 구린 일이 있다는 일본속담)이란 말도 있는데, 이 상처는 젓먹이일 때 자연스럽게 한쪽 정강이에 나타나서, 내가 자라면서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깊이 뿌리내려 뻗속까지 뚫고 들어와

また、俗に、脛に傷持つ身、といふ言葉もあるやふですが、その傷は、自分の赤ん坊の時から、自然に片方の脛にあらはれて、長ずるに及んで治癒するどころか、いよいよ深くなるばかりで、骨にまで達し (p.433)

‘정강이의 상처’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모성애로부터의 소외를 나타낸다. 기질적으로 심신이 모두 허약하여 건강하지 못한 요조에게 모성애의 결핍은 자신의 출생과 함께 죄인의 낙인을 몸에 지니고 태어났다는 원죄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모성애의 결핍은 요조의 자의식 속에 패배자의식, 원죄의식으로 자리잡고 요조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대상이 아닌, 자신에게 패배

자의식과 죄의식만을 안겨주는 존재로 느껴질 뿐이다.

또한 모성애의 결핍은 외계와의 화해를 곤란하게 하여 요조를 내면의 여성적 세계에 머물게 하고 외부의 남성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립을 불가능하게 한다.¹⁹⁾ 이러한 점이 여자에게 의지하며 사는 무능력함으로 나타나고 요조의 복잡한 여성편력으로 표출된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자신만이 소외되었다는 원망과 무정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어머니의 代替인 여자들에게 향하면서 이것이 복잡한 여자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²⁰⁾

결국 모성애의 부재는 요조의 자의식 속에 자신만이 근원적인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버려졌다는 자기소외의식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더 나아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패배자의식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원죄의식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성애의 결핍

다자이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는 어머니 이상으로 중요시되는 환경적 요인이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다자이의 작품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자이는 자신의 성장환경에 대해 쓴 작품 『思い出』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다.

아버지는 늘 바쁜 사람으로 집에 계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집에 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다. 나는 이런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아버지의 만년필을 갖고 싶으면서도 그것을 말할 수 없어서 혼자서 여러 고민 끝에 어느 날 밤, 잠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잠꼬대처럼 “만년필, 만년필”하고 옆방에서 손님과 이야기 중인 아버지에게 낮게 소리친 적이 있었지만, 물론 그것은 아버지의 귀에도 마음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나와 동생이 쌀가마니가 잔뜩 쌓여 있는 넓은 쌀창고에 들어가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아버지가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이 녀석아, 나와, 나와”하고 꾸짖었다. 빛을 등지고 서있어서 아버지의 커다란 모습이 시커멓게 보였다. 나는 그 때의 공포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19) 三好行雄, 『太宰治必携』, 學燈社, 1981, p.50.

20) 笠原伸夫, 「太宰治における死とエロス」, 『一冊講座 太宰治』, 有精堂, 1983, p.13.

私の父は非常に忙しい人で、うちにゐることがあまりなかつた。うちにゐても子供らと一緒に居らなかつた。私は此の父を恐れてゐた。父の萬年筆をほしがつていながらそれを言ひ出せないで、ひとり色々と思ひ悩んだ末、或る晩に床の中で眼をつぶつたまま寢言のふりして、まんねんひつ、まんねんひつ、と隣部屋で客と對談中の父へ低く呼びかけた事があつたけれど、勿論それは父の耳にも心にもはひらなかつたらしい。私と弟とが米俵のぎつしり積まれたひろい米藏に入つて面白く遊んでゐると、父が入口に立ちほだかつて、坊主、出ろ、出ろ、と叱つた。光を背から受けてゐるので、父の大きい姿がまつくろに見えた。私は、あの時の恐怖を惟ふと今でもいやな氣がする。21)

위에서 나타나듯이 다자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부자간의 일반적인 유대 관계를 맺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아버지의 지위는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절대적이고 권위적이다. 이런 아버지는 다자이의 전 생애에 걸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작품을 통해서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묘사된다. 『人間失格』에서도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조는 「제 1 수기」에서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 아버지는 도쿄에 볼일이 많은 분이였기 때문에 우에노 부근의 사쿠라기쵸의 별장을 갖고 있었고, 한 달의 대부분을 도쿄에 있는 그 별장에서 지내셨습니다. (중략)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일은 자주 없습니다.

自分の父は、東京に用事の多いひとでしたので、上野の櫻木町に別荘を持つてゐて、月の大半は東京のその別荘で暮してゐました。(中略)こんなに子供たちと親しくするのは、めづらしい事でした。(p.407)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아버지로부터 상실된 사랑의 회복을 원한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자신의 결핍된 애정을 충족시켜줄 만한 대상이 아니고 낯선 타인과 같은 존재로 느껴질 뿐이다. 한 달의 대부분을 도쿄의 별장에서 지내는 바쁜 아버지에게 혈육의 정을 나눈 부자지간으로서의 막연한 그리움을 느끼지만 요조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그리움의 감정을 뛰어넘는 더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간다.

21) 太宰治, 「思い出」, 『太宰治全集第一卷』, 筑摩書房, 1980, p.29.

「제 1 수기」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도쿄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오실 때 사울 선물에 대해 요조에게 묻는 장면에서 양자택일의 능력이 없는 요조는 우물쭈물 대답도 못하고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이때 요조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무슨 낭패란 말인가. 난 지금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복수는 틀림없이 무시무시할 테니, 이제라도 어떻게든 무마할 수 없을까 하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고민하다가

何といふ失敗、自分は父を怒らせた、父の復讐は、きつと、おそるべきものに違ひない、いまのうちに何とかして取りかへしのつかめものか、とその夜、蒲團の中でがたがた震へながら考へ (p.408)

이처럼 요조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존재이며 자신에게 무시무시한 복수를 할지 모르는 두려운 존재이다. 부모의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자신의 사소한 실수 앞에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 앞에서 요조는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질 뿐이다.

도고 가쓰미(東郷克美)는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람이 최초로 만나는 타인은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합법’적 외계의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자식에게 알 수 없는 ‘공포’를 주고 동시에 피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의해 ‘그리운’ 존재이기도 하다는 배반되는 이면성을 가진다.²²⁾

인간이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타인은 아버지이다. 또한 아버지는 자신에게 피와 살을 나누어준 존재로서 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길러주고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법을 보여주며, 자식은 아버지를 거울삼아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터득한다. 그러나 요조의 경우, 어머니의 역할 부재와 부모로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아버지는 공포감만을 안겨주는 타인으로 인간세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22) 박세영,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문학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2, p.76, (재인용)

또한 요조에게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도 난해한 존재이다. 「제 1 수기」에서 요조는 집에서 부리는 식모와 하인들에게 性的 虐待를 당한 적이 있지만 그 사실을 부모에게 고해바치지 못했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범죄를 부모님께 고해바쳤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부모님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本當の事を言ふ習慣がついてゐたなら、惡びれず、彼等の犯罪を父や母に訴へる事が出来たのかも知れませんが、しかし、自分は、その父や母をも全部は理解する事が出来なかつたのです。(p.411)

어린 나이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 결국 요조는 외부세계로의 연결자인 부모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아무도 인간 세계와의 소통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므로 극도로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요조는 아버지에게 심한 무력감을 보인다. 말대꾸나 자기변명도 하지 못하고 양자택일의 능력까지 상실한 요조가 처음으로 미술학교에의 진학을 희망하지만 다음과 같이 아버지라는 벽에 가로막혀 화가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

나는 미술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전부터 나를 고등학교에 입학시켜 나중에 공무원을 만들 생각으로,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말대꾸도 못하는 나는 역시 이번에도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自分は、美術學校にはひりたかつたのですが、父は、前から自分を高等學校にいて、末は官吏にするつもりで、自分にもそれを言ひ渡してあつたので、口應へ一つ出来ないたちの自分は、ぼんやりそれに従つたのでした。(pp.425~426)

아버지는 요조의 인생을 지배하고 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인간세계에 적응시키려 한다. 요조에게 아버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므로 아

버지가 정해놓은 인생을 강요당해도 어떠한 반발이나 저항조차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싫은 것을 싫다고 거절할 수 없는 성격적인 나약함으로 아버지를 항상 의식하며 아버지에게 ‘착한 아이’로 인정받고 싶은 나르시즘적 성격을 드러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화가에의 꿈이 아버지에게 의해 좌절된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요조의 인생을 주형에 집어넣어, ‘화가’로 상징되는 그의 주체성 확립의 싹을 잘라버리는 무서운 존재로, 속박이든 도피·반발이든 요조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쉽게 타과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인 것이다.²³⁾ 결국 요조는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다는 자기상실감과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두려운 아버지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패배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나중에 자기 주도적 삶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활무능력자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게 되면서 아버지와는 접촉은 거의 없게 되고 아버지의 지배에서 잠시 벗어난 요조의 방탕한 생활이 시작된다.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요조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된다. 「제 2 수기」에 쓰네코(ツネ子)와의 가마쿠라(鎌倉) 정사사건(情死事件) 이후, 아버지의 대리인이며 인간 세계의 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히라메(ヒラメ)의 집에 기거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요조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히라메는 그때 그저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이제 곧 4월이니 학교에 들어가시오. 입학을 하면, 당신의 생활비는 고향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한참 지나고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사실 얘기는 미리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그랬으면 나도 그대로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히라메가 나에게 대해 미리 경계하며 휘휘 돌려 말했기 때문에, 묘하게도 일은 꼬여, 내 삶의 방향도 생각지 못한 곳으로 바뀌었지요. (중략) 돈은 고향집에서 부쳐주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고, 왜 그 한마디를 안 한 걸까요. 그 한마디만 들었어도 내 결심이 확실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난 다시 안개 속을 헤매게 됐습니다.

ヒラメは、その時、ただかう言へばよかつたのでした。

23) 鶴谷憲三, 『(Spirit) 太宰治：作家と作品』, 有精堂, 1994, p.159.

「官立でも私立でも、とにかく四月から、どこかの學校へはひりなさい。あなたの生活費は、學校へはひると、くにかから、もつと充分に送つて來る事になつてゐるのです。」ずつと後になつてわかつたのですが、事實は、そのやうになつてゐたのでした。さうして、自分もその言ひつけに従つたでせう。それなのに、ヒラメのいやに用心深く持つて廻つた言ひ方のために、妙にこじれ、自分の生きて行く方向もまるで變つてしまつたのです。(中略) お金は、くにかから來る事になつてゐるんだから、となぜ一こと、言はなかつたのでせう。その一言に依つて、自分の氣持も、きまつた筈なのに、自分には、ただ五里霧中でした。(pp.457~458)

여기서 자신의 의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요조는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린다.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생활무능력자인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에게 맡긴 채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나약한 모습이다.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이며 세상의 권력자인 아버지에게 지배당하여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두려움의 대상인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듯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도피든 반발이든, 결국 자신이 돌아가 기댈 곳은 아버지라는 존재이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최종적으로 의존할 장소, 자신의 응석을 받아줄 것도 ‘くに’, ‘고향’, ‘아버지’인 것이다.²⁴⁾ 아버지의 입장에서 요조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버지는 다시 학교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생활할 수 있는 소액의 생활비를 제시하고 있다. 요조에게 제대로 된 생활을 강요하는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요조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학교에의 재입학을 강요해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아버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도망치듯 히라메의 집을 나와 잡지사 여기자인 시즈코(シズ子)의 집에 기거하며 ‘기둥서방 같은 생활(男めかけみtain生活)’을 시작한다.

가마쿠라 정사사건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다자이의 ‘分家除籍²⁵⁾’이라는 경험과 일치한다. 이때의 심정이 요조가 시즈코의 다섯 살짜리 딸 시게코(シゲ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기도를 하면 신께서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시나’는 시게코의 물음에 요조는 ‘자신

24) 鶴谷憲三, 『(Spirit) 太宰治 : 作家と作品』, 有精堂, 1994, p.159.

25) 생가의 가족들 몰래 고교시절부터 친숙하게 지내던 기생인 오야마 하즈요(小山初代)와의 동거가 탄로나면서 分家除籍(1930년 2월)을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받는다. 다자이에게 분가제적이란 단순히 호적을 나누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처해진 義絶같은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생과 결혼한 사실을 들 수 있지만 사실은 비합법적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신께서 자신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답을 한다. 이것은 '分家除籍'이라는 상황에 처한 요조가 아버지, 즉 집안으로부터의 완전한 관계단절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절망적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인간 세상과의 환관 대결을 결심했던 요시코(ヨシ子)와의 결혼생활이 그녀의 순진무구한 신뢰심으로 파탄이 나고 요조는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미수에 그친다.

두 번째의 자살미수 사건 이후 알코올과 약물에 의지하여 더욱 방탕한 생활을 하던 요조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인간실격자로 폐인이 되어버린 요조에게 다음과 같이 아버지의 죽음이 통보된다.

아버지가 이젠 없다. 내 가슴속에서 1초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림고도 두려운 존재가 이젠 없다. 내 가슴속 고뇌로 가득 찼던 향아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고뇌의 향아리가 그렇게도 무거웠던 것은 다 아버지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맥이 풀려 폭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젠 고뇌할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父が、もうゐない、自分の胸中から一刻も離れなかつたあの懐しくおそろしい存在が、もうゐない、自分の苦惱の壺がからつぽになつたやうな氣がしました。自分の苦惱の壺がやけに重かつたのも、あの父のせるだつたのではなからうかとさへ思はれました。まるで、張合ひが抜けました。苦惱する能力をさへ失ひました。(p.509)

인간세계를 대표하는 아버지는 요조에게 그리움과 두려움의裏面的인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런 아버지의 죽음은 이제까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존재가치마저 한순간에 빼앗아간다. 더 이상 자신은 의지할 곳도 없고 살아갈 자신도 없다. 자신이 돌아갈 최후의 장소인 아버지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은 세상의 끝을 암시한다. 결국 요조에게 인간으로서는 끝이라는 절망과 허무감만이 남을 뿐이다.

요조에게 아버지는 곧 인간세계의 이미지와 같다.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나 결코 단념할 수 없는 아버지와 인간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요

조의 비극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아버지는 요조에게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과 불가항력적인 패배의식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이다. 이런 무기력함과 패배의식은 요조의 자의식 속에 자리 잡아 요조의 사회부적응으로 나타나고 결국 인간세계에서 소외된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2. 內的 배경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complex)

요조가 인간의 삶에서 소외되어 사회화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에는 유년기에 있어서 누구나 겪고 지나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데 기인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는 개념은 프로이트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대략 만 세 살에서 만 여섯 살 사이의 아이들이 한쪽 부모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껴 그 부모를 독점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쪽 부모에게는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유아기의 모든 남자는 자신의 애정의 대상인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대립하게 되지만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아버지를 통해 사회화하게 된다. 그러나 요조의 경우 공포의 대상인 아버지는 자아의 인격 성숙을 위한 동일시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동일시의 어려움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머니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성적욕망을 느끼는 유아기의 아이는 아버지를 적대자로 간주하기 쉽다.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일차적인 역할 내용이 ‘두려운 아버지’이고, 이차적으로는 자식에게 자아 이상(自我理想, ego-ideal)²⁷⁾으로서의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자식이 느끼는 왜소감과 망연자실을 보상받게 해주는 존재로서, 그리고 아들의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서 그 역

26) 로버트 M.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제이북스, 2002, p.6.

27)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자아 이상이란 초자아의 일부로, ‘순수 초자아(superego proper)와 합쳐져 초자아 전체를 이룬다. 자아 이상은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나타나 자신을 긍정적, 이성적(理性的)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원동력이며 이는 다분히 의식세계 수준에서 일어난다.

할을 한다고 하였다.²⁸⁾

요조의 경우에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적용시켜 본다면, 누구나 겪는 남근기 ‘성욕동(性慾動)’²⁹⁾과 성 환상에 취해 있던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병약한 어머니로부터 떨어져라’라는 낯설고 곤혹스러운 ‘아버지의 요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아버지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 모습으로 요조에게 인식되며, ‘아버지의 요구’는 자아의식의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어린 요조가 수용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떨어져라’라는 요구는 어머니에게 강렬한 ‘성욕동’을 부착시킴으로써 쾌락 환상에 빠져 있는 요조가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때 ‘아버지의 요구’에 직면한 요조가 무의식적으로 품게 되는 마음이 바로 오이디푸스 욕구인 것이다. 오이디푸스 욕구는 강한 ‘성욕동’을 지닌 남근기의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의 삼각관계 속에서 운명적으로 느끼게 마련인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이다.³⁰⁾ 그러나 이 오이디푸스 욕구가 강할수록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발로 나타나고 극도로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아버지의 요구’에 충격을 받은 아이는 자신이 사랑하던 대상인 어머니에 대해 양가감정(兩價感情)³¹⁾을 느끼고 ‘아버지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도, 전적으로 거부하지도 못하는 복합적인 갈등상태에 놓이게 된다. 유아기 아이들이 보이는 모든 반항은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부모, 특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거부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아버지한테 성기를 거세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점차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³²⁾ 이때 ‘아버지의 요구’를 거부한 채 증오감을 계속 표출하면, 아버지에게 ‘거세’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환상적 공포상태인 거세불안을

28) 이숙, 「김소진 소설 연구 작중인물의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p.17.

29) 리비도(Libido)를 뜻함. 이창재는 그의 저서 『프로이트와의 대화』에서 리비도를 성욕동으로 대신함.

30)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06, p.217.

31) 양가감정이란 사랑하는 동시에 증오하는 감정을 말한다. 충격을 받은 아이는 자신의 성 대상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복잡한 기분에 빠진다.

32) 이숙, 「김소진 소설 연구 작중인물의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p.16.

느끼게 된다. ‘거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남근이 잘린다는 의미가 있고, 부모의 애정을 상실한다는 의미도 있다.³³⁾ 거세불안은 성인이 된 후에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사회에 대해 극도의 무기력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세불안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아이상의 모델인 아버지를 통해 비로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요조의 아버지는 남근기의 요조에게 애정의 대상인 어머니를 자신에게서 빼앗아 간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미성숙한 자아를 갖고 있는 어린 요조에게 ‘어머니로부터 떨어져라’라는 아버지의 요구는 극심한 오이디푸스 욕구를 느끼게 한다. 또한 어머니란 존재의 부재는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부모의 애정을 상실했다, 사랑을 거부당했다는 거세불안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것은 요조가 성장하여 많은 여자들과의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그의 ‘性’개념에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양가감정으로 생긴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여자라는 존재를 난해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애정 대상인 모성의 부재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 증오로 나타나고 아버지에 대한 요조의 의식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작용하여 아버지에 대한 반발과 공포심,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요조는 자신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 간 아버지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데 실패한다. 그로 인해 자아 이상의 모델이 되는 아버지를 통해 사회화하지 못하고 결국 인간세계에서 낙오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트라우마(trauma)

『人間失格』의 주인공 요조는 인간세계와의 소통에서 단절, 고립되어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부유하는 인간상을 제시한다. 요조가 인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간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어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배경에는 트라우마³⁴⁾로 생긴 심리적 요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33) 이창재, 앞의 책, p.223.

트라우마에 대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적인 비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외상적’이란 용어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의미 외에 다른 뜻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외상이라고 부르는 어떤 경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정신적인 면에 상당히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보통 방법으로는 잘 소화를 시키거나 극복할 수가 없어서 오래도록 남아 있는 장애가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³⁵⁾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트라우마는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한 인간이 갖게 되는 상처로 무의식 속에 깊이 존재하여 쉽게 치유되지 않는 기억이며 정서적인 경험이다. 프로이드는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킨다고 하였다.³⁶⁾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요조의 성장과정에서 트라우마의 여러 가지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 부모의 부재로부터 오는 트라우마를 들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 분리되는 분리불안은 미성숙한 요조에게 心的 外傷으로 작용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충격은 유년기의 요조에게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자극이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유아는 자신이 양육자에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정신에 치명적인 불안을 느끼게 된다. 유아는 이 불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기제를 작동시킨다. 그 결과 정서 발달과 자아 발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긴다.³⁷⁾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요조의 자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가 트

34)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용례가 많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장기기억 되는데,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35) 김수영, 「테이벳 매릿극 연구:트라우마(Trauma)로 인한 인간관계의 좌절과 극복」,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p.2. (재인용)

36) 이창재, 앞의 책 p.236. (참고)

37) 이창재, 앞의 책. pp.158~159.

라우마로 작용하여 자신은 ‘어둠의 자식’이라는 패배자의식과 태어난 순간부터 ‘정강이의 상처’를 갖고 태어났다는 원죄의식으로 표출되고 여자관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하인들에게 당한 性的 虐待에서 오는 트라우마가 있다.

「제 1 수기」에서 요조는 다음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성희롱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한다.

그 당시 이미 나는 식모와 하인들에게 슬픈 일을 배웠고, 성희롱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그런 일을 하는 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하등하고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 참았습니다.

その頃、既に自分は、女中や下男から、哀しい事を教へられ、犯されてゐました。幼少の者に對して、そのやうな事を行ふのは、人間の行ひ得る犯罪の中で最も醜惡で下等で、殘酷な犯罪だと、自分はいまでは思つてゐます。しかし、自分は、忍びました。(p.411)

위에서 나타나는 性的 虐待의 경험은 어린 요조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유아기의 인간은 고통을 감당하는 자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자극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자극이 생생하게 무의식 속에 각인된다. 무의식 속에 각인된 자극은 억압되고 기존에 억압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자극시키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어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가 무의식에 억압된 충동과 상처를 자극할까 봐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떨치지 못한다.³⁸⁾ 이러한 불쾌한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억압되게 되면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며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가족 속의 존재가치가 없는 막내라는 위치에서 오는 트라우마를 들 수 있다.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막내라는 위치는 자신을 주변적 존재라는 자각을 심어준다. 자신은 항상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존재라는 의식과 자신의 존재

38) 이창재, 앞의 책, pp.99~100.

가치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으로 요조는 가족 속에서의 고독과 자기소외를 경험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소외감은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또한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단절은 트라우마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요조의 경우 주변사람들과 주위환경으로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로 대가족 속에서의 소외감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하에 빠지게 되어 자신을 인간세계에 속하지 못하는 인물로 설정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요조의 성장 후, 카페의 여종업원인 쓰네코와 일으킨 가마쿠라 정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들 수 있다.

가마쿠라 정사사건으로 여자만 죽고 자신이 그녀의 죽음에 동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요조의 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평생 씻지 못할 죄의식을 안게 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예문에서 알 수 있다.

잊을 만하면 괴조(怪鳥)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와, 기억 속의 아픈 상처를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댁니다. 그러면 곧바로 과거에 저지른 죄와 수치스런 기억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져, 으악!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무서워,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忘れかけると、怪鳥が羽ばたいてやつて来て、記憶の傷口をその嘴で突き破ります。たちまち過去の恥と罪の記憶が、ありありと眼前に展開せられ、わあつと叫びたいほどの恐怖で、坐つてをられなくなるのです。(p.486)

가마쿠라 정사사건은 요조의 유년기에 겪었던 心理的 外傷에 그 충격을 가중시켜 몇 배로 더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었고 기억 속의 아픈 상처는 무의식 속에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거듭되는 트라우마는 요조의 자의식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자의식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유년기의 충격적 경험은 요조에게 상처가 되어 트라우마로 자리잡고 그의 인간관계를 좌절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은 인간세계에 대한 이해부족을 초래하고 자신은 인간세계에서 소외된 인간이라는 소외의식을 낳게 되었다. 결국 유년기의 트라우마를 극복

하고 타인과의 공존에 실패한 요조는 자신을 점점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그것이 더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Ⅲ. 自意識의 표출양상

요조의 자의식의 형성배경에는 원천적인 사랑의 근본이 되는 어머니, 아버지, 가족의 상실이 있었다. 사랑을 받고 출발해야 할 근본을 상실한 채 그 결핍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었다. 가족에서의 고독, 자기소외는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사는 자폐적 인간을 만들어 자신을 理想世界의 인간으로 규정하고 모성애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과 아버지에 대한 공포는 인간 세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올바른 관계유지의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더불어 요조의 자의식 형성의 내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트라우마는 주인공의 정신적, 심리적인 결함을 초래한다. 그 결과 사회화에 실패하여 자신의 사회부적응을 자각하면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외적, 내적 배경을 바탕으로 요조라는 인물의 의식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요조의 자의식 형성에 바탕이 되는 요인들을 거쳐 그의 자의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道化」

「道化」는 가부키에서 사람을 웃기는 익살스러운 말이나 동작, 또는 어릿광대를 말하며 일종의 ‘가면’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말과 동작으로 자신을 낮추고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웃기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가면’이란 진실로 비춰지는 거짓된 자아이다. 가면 속에 진실된 자아를 숨기고 꾸며진 자아를 연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꾸며진 자아를 통해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표면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가면

속의 진실된 자아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人間失格』에는 수기의 전반에 걸쳐 현실부적응자인 요조가 인간 세계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道化」와 세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인간 불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누리지만 어머니의 부재, 언제나 바쁜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 가족들에게서 느끼는 자기소외는 어린 요조의 세상에 대한 현실부적응으로 나타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의 삶’은 다음과 같이 세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만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니까 결국 내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아직도 뭘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관념이 서로 엇갈린 것 같다는 불안, 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며 신음했고,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つまり自分には、人間の営みといふものが未だに何もわかつてゐない、といふ事になりさうです。自分の幸福の観念と、世のすべての人たちの幸福の観念とが、まるで食ひちがつてゐるやうな不安、自分はその不安のために夜々、輾轉し、呻吟し、發狂しかけた事さへあります。(p.403)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괴로워하던 요조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구애’로 다음과 같이 「道化」를 생각해낸다.

나는 주위 사람들과 거의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광대짓’입니다. 그 행동은 내게 인간에 대한 마지막 구애입니다. 난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그렇다고 인간을 아무래도 단념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스운 행동을 수단으로 인간과의 가느다란 연결 고리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自分は隣人と、ほとんど會話が出来ません。何を、どう言つ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のです。そこで、考へ出したのは、道化でした。それは、自分の、人間に對する最後の求愛でした。自分は、人間を極度に恐れてゐながら、それでゐて、人間を、どうしても思ひ切れなかつたらしのです。さうして自分は、この道化の一線でわづかに人間につながる事が出來たのでし

た。(p.404)

즉 ‘인간의 삶(人間の営み)’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요조가 생존을 위해 학습과 추측에 의해 인간의 삶을 모방하는 것, 즉 연기는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다.³⁹⁾ 다니자와 에이치(谷澤永一)는 요조의 「道化」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요조가 「道化」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고통의 이유, 정도가 전혀 짐작이 안되어 주위사람들과 거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적응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葉藏が「道化」という生きかたを選んだのは、彼が人間の営みといふものをなにも理解できず、「隣人の苦しみの性質、程度が、まるで見当つか」ず、「隣人と、ほとんど會話が出来」ないほど、社會的適應能力を缺除していることを理由とする⁴⁰⁾

결국 「道化」란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이 자신의 사회적응능력의 결여를 인식하고 인간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선택한 생존의 한 방법인 것이다.

또한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道化」는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이자 인간들을 향한 필사의 서비스이다.

무슨 짓이라도 좋으니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그들의 이른바 ‘생활’권 밖에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 인간들의 눈에 거슬리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이다. 허공이다. 이런 생각으로 길을 둘러싸고, ‘광대짓’으로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며, 나아가 우리 식구보다 더 알 수 없고 무서운 존재인, 하인들과 하녀에게까지 필사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겁니다.

何でもいいから、笑はせてをればいいのだ、さうすると、人間たちは、自分が彼等の所謂「生活」の外にゐても、あまりそれを氣にしないのではないかしら、とにかく、彼等人間たちの目障りになつてはいけない、自分は自分は無だ、風だ、空だ、といふやうな思ひばかりが募り、自分はお道化に依つて家族を笑はせ、また、家族よりも、もつと不可解でおそろしい下男や下

39) 勝原晴希, 「『人間失格』-地上の聖性」,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第7卷14号, 學燈社, 2002.12 p.102.

40) 谷澤永一, 「太宰治『人間失格』の構成」,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太宰治』, 有精堂, 1970, p.182.

女にまで、必死のお道化のサーヴァイスをしたのです。(p.406)

즉 요조에게 「道化」는 無, 바람, 허공 이라는 상태로 자신의 존재감마저 없애면서 인간에게 행하는 봉사이자 서비스이고 어색하고 불편한 인간과의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요조는 「道化」를 몸에 익히기 시작한다. 인간에 대한 공포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활에 고뇌하면서 겉으로는 언제나 즐거운 낙천주의자로 가장하고,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한 괴짜로 차츰 자신을 완성시킨다. 한 여름에 유카타(浴衣) 속에 빨간색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돌아다녀 식구들을 웃기는 일, 하인과 하녀들을 모아두고, 아무렇게나 피아노를 치라 하고는 엉터리 가락에 맞춰 인디언 춤을 춰 박장대소하게 만든 일 등, 점점 더 「道化」에 열중하고 완벽하게 남을 속이기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다. 점차 요조는 「道化」의 달인이 되어 「道化」를 의식하지 않고서도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경지에 이른다. 그러나 거듭되는 「道化」의 성공으로 안심하던 순간, 결국 그 연기가 탄로 나는 사건이 일어난다.

「道化」의 첫 번째 실패는 고향을 떠나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케이치(竹一)라는 급우에게 완벽에 가까운 「道化」가 들키면서 시작된다.

그날, 체육 시간에 그 학생(성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름은 다케이치였다고 기억합니다) 다케이치는 언제나 그랬듯이 견학을 했고, 우리들은 철봉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최대한 엄숙한 표정을 하고, 철봉을 향해 “야잇!” 기합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날았다가 멀리뛰기를 할 때처럼, 모래판 위에 폴짝 엉덩방아를 찧으며 떨어졌습니다. 모두 일부러 꾸민 실수였습니다. 내 의도대로, 과연 반 아이들은 모두 큰 소리로 웃었고, 나도 무안한 척 미소를 지으며 모래판에서 일어나 바지를 털었는데, 언제거기까지 다가왔는지 다케이치가 내 뒤를 따라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부러 실수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아이 다케이치에게 들킨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지옥의 화염에 불타오르는 광경을 목격하는 듯한 심정이 되어,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발광할 뻔한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その日、體操の時間に、その生徒（姓はいま記憶してゐませんが、名は竹一といつたかと覚えてゐます）その竹一は、れいに依つて見學、自分たちは鐵棒の練習をさせられてゐました。自分は、わざと出来るだけ嚴肅な顔をして、鐵棒めがけて、えいつと叫んで飛び、そのまま幅飛びのやうに前方へ飛んでしまつて、砂地にドスンと尻餅をつきました。すべて、計畫的な失敗でした。果して皆の大笑ひになり、自分も苦笑しながら起き上つてズボンの砂を拂つてみると、いつそこへ來てゐたのか、竹一が自分の背中をつつき、低い聲でかう囁きました。「ワザ。ワザ」自分は 震撼しました。ワザと失敗したといふ事を、人もあらうに、竹一に見破られるとは全く思ひも掛けな事でした。自分は、世界が一瞬にして地獄の業火に包まれて燃え上るのを眼前に見るやうな心地がして、わあつ！と叫んで發狂しさうな氣配を必死の力で抑へました。(p.415)

백치와도 같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찮은 존재인 다케이치에게 자신의 훌륭한 「道化」가 탄로 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요조의 인간공포는 더욱 심해져 「道化」를 연기하면서도 끝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완벽한 「道化」를 위해 더욱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그 후, 한 번 더 요조의 「道化」가 실패한다. 그것은 쓰네코와 일으킨 가마쿠라 정사사건으로 인해 검사 앞에서 취조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와 소맷자락에서 얼른 손수건을 꺼내, 문득 그 핏자국을 보고, 이번에도 이 기침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교활한 마음이 들어, 쿡 쿡 두번 정도 약간의 과장을 섞어 헛기침을 하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검사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진짜냐?”

突然、れいの咳が出て來て、自分は袂からハンケチを出し、ふとその血を見て、この咳もまた何かの役に立つかも知れぬとあさましい駈引きの心を起し、ゴホン、ゴホンと二つばかり、おまけの贗の咳を大袈裟に付け加えて、ハンカチで口を覆つたまま検事の顔をちらと見た、間一髪、「ほんたうかい？」(pp.452~453)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수준까지 오른 그의 속임수가 탄로 나면서 인간에 대한 공포감은 극에 달한다. 요조에게 있어서 「道化」가 간파 당한다는 사실은 그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세상 속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

실을 나타낸다.⁴¹⁾ 두 번에 걸친 「道化」의 실패로 그는 점점 패배와 굴욕의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점차 「道化」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요조의 「道化」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인간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자신을 숨기고 거짓된 자신을 만들어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간절한 몸짓이다. 그러나 「道化」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 거짓의 모습으로 걸으려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면서도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긴장과 불안만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썼던 가면 때문에 가면 속의 자신의 모습은 진실된 인간의 모습에서 멀어져가고 자신이 인간과 다르다는 위화감과 불안으로 그는 더욱 「道化」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요조가 행하는 「道化」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하나가 이제까지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을 극도로 무시위하지만 그래도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행한 필사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부러 행한 계산적인 「道化」라고 할 수 있다.

나카노 가이치(中野嘉一)는 요조의 「道化」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人間失格』에는 두 종류의 「道化」가 묘사되어 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여 생각해낸 것이 「道化」이다. 하나는 서비스로서의 「道化」이고, 다른 하나는 「임기응변의 술책」 또는 「계략」이 내제된 타산적인 연기로서의 「道化」이다.

『人間失格』には二つの種類の「道化」が描かれている。不安と恐怖に襲われて考え出したのが道化でした。一つはサービスとしての「道化」であり、他の一つは「驅引き」とか「計略」を含んだ打算的な演技としての道化である。⁴²⁾

이렇게 요조는 공포로 가득 찬 인간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서비스로서, 때로는 타산적으로 계산된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의 「道化」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갔다고 할 수 있다.

41) 勝原晴希, 「『人間失格』-地上の聖性」,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第47卷14号, 學燈社, 2002.12, p.102.

42) 하은정, 「다다이 오사무의 罪意識에 대한 考察」,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p.18. (재인용)

또한 요조의 「道化」가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다니자와 에이치(谷澤永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조의 불안과 공포는 현실부적응증의 심리적 반영이지만 그 결과인 「道化」라는 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아주 정확한 현실파악을 전제로 하는 우수한 연기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葉藏の「不安と恐怖」は、現實不適應症の心理的反映であるのに、その結果である「道化」の行爲を成立させるには、本質的にはかなり正確な現實把握を前提する筈の優秀な演技能力を、基礎に置かざるを得ない。⁴³⁾

비록 처음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도 첫 번째의 성공이 두 번째의 「道化」의 지침이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됨에 따라 나중에는 요조가 사람의 심리,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요조가 자신을 어리석게 보여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다가가려는 수단으로서 「道化」를 이용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우월의식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道化」의 우월의식에 대해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恒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우월을 느끼는 자만이 진정한 「道化」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자신있는 자만이 「道化」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自己優越を感じてゐる者だてが、眞の道化をやれるんだ。」それならばまた、自信あるもののみが、道化をたのしめるのだといひえよう。⁴⁴⁾

이처럼 요조는 어리석음을 가장한 「道化」를 연기하면서 사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였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道化」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다.

43) 谷澤永一、「太宰治『人間失格』の構成」,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太宰治 I』, 有精堂, 1970, p.182.

44) 福田恒存, 「道化の文学」, 奥野健男編, 『太宰治研究 I その文学』, 筑摩書房, 1982, p.59.

요조가 「道化」에 열중하게 된 배경에는 모성애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앞에서 유년기의 모성애의 부재는 자기가 외부세계의 연결통로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요조는 단절된 인간세계와의 새로운 통로 구축의 수단으로 「道化」를 선택하였고 모성애의 부재로 인한 결핍감을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극복하려 했다. 그러므로 요조의 「道化」는 특히 어머니의 대체인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다니자와 에이치(谷澤 永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조의 정확한 심리 파악은 거의 여성의 심리에 관한 범위에 한정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조의 「道化」는, 여성을, 그것도 개개인으로 대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葉藏のウガチは、ほとんどが女性の心理に關する範圍に限定される。そして一般に、葉藏の「道化」は、女性を、しかも個々に扱うときにのみ、効果を發軍する。⁴⁵⁾

결론적으로 요조에게 있어서 「道化」란 인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종의 방어수단이며 자기소의 의식으로부터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성애의 상실로 인한 요조의 굴절된 구조의 자의식이 「道化」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수단을 통해 인간세계와 소통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2. 자기파괴현상

인간세계에서 요조가 도착한 최후의 종착점은 정신병원이었다. 이는 인간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요조의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인간들의 눈에 廢人の 모습으로 비춰진 데에는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해 살아온 중독의 삶이 원인이었고 중독의 삶은 그의 인간공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조는 심한 대인공포증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부끄러움의 의식과도 맞

45) 谷澤永一、「太宰治『人間失格』の構成」,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太宰治 I』, 有精堂, 1970, p.183.

물린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심신을 타고난 요조는 다음과 같이 보통 사람들 이상으로 자신에 대해 의식하는 자의식의 과잉현상을 보인다.

나는 사실 혼자서는 차장이 무서워서 전차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가부키 극장에 들어가 보고 싶어도 극장 정문 앞 용단 깔린 계단 위에 쪽 늘어선 안내원들이 무서웠으며, 레스토랑에 들어가도 등 뒤에서 말없이 접시가 비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이들이 겁났고, 특히 계산할 때, 아아, 그 어색하고 촌스런 내 손 동작, 나는 물건을 사고 돈을 건넬 때는 구두쇠여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또 불안하고 무서워서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새까맣게 보여 발광하기 직전까지 되기 때문에 값을 깎기는커녕, 거스름돈을 받는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산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까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는 도쿄 거리를 구경 다니지도 못하고 별수 없이 하루 종일 방안에서 뒹굴었던 말 못 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自分は、實は、ひとりでは、電車に乗ると車掌がおそろしく、歌舞伎座へはひりたくても、あの正面玄関の緋の絨緞が敷かれてある階段の兩側に並んで立つてゐる案内嬢たちがおそろしく、レストランへはひると、自分の背後にひっそり立つて、皿のあくのを持つてゐる給仕のボーイがおそろしく、殊にも勘定を拂ふ時、ああ、ぎごちない自分の手つき、自分は買ひ物をしてお金を手渡す時には、吝嗇ゆゑでなく、あまりの緊張、あまりの恥づかしさ、あまりの不安、恐怖にくらくら目まひして、世界が眞暗になり、ほとんど半狂亂の氣持になつてしまつて、値切るどころか、お釣りを受け取るのを忘れるばかりでなく、買った品物を持ち歸るのを忘れた事さへ、しばしばあつたほどなので、とても、ひとりで東京のまちを歩けず、それで仕方なく、一日一ぱい家の中で、ごろごろしてゐたといふ内情もあつたのでした。(pp.428~429)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대인공포증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신의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는 성인이 되면서 대인공포 현상은 점차 극복 되어간다.

그러나 요조는 선천적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나약한 심성을 갖고 태어났으며 부모와 가족에서의 애정결핍과 자기소외, 유년기에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그의 대인공포는 병적이라고 할 만큼 지나치다. 일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대인공포증을 안고 있던 요조는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술, 담배, 매춘

부를 통해 일시적인 위안을 얻으려 한다.

술, 담배, 매춘부, 그건 모두 대인 공포증을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회색시킬 수 있는 꽤나 좋은 수단이란 걸 나도 곧 알게 됐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내 소유물을 전부 내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酒、煙草、淫賣婦、それは皆、人間恐怖を、たとひ一時でも、まぎらす事の出来るずるぶんよい手段である事が、やがて自分にもわかつて來ました。それらの手段を求めるためには、自分の持ち物全部を賣却しても悔いない氣持さへ、抱くやうになりました。(p.430)

또한 요조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매춘부들에게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연대의식을 느끼며 인간에 대한 공포감을 잊고 하룻밤의 편안한 잠을 위해 그들을 찾아다녔던 사실에서 유추해보면 그가 얼마나 불면증으로 고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불면증 또한 인간세계에 대한 공포가 그 원인이며 불면증에 시달리던 요조는 습관적으로 칼모틴(신경안정수면제)을 복용하게 된다.

결국 요조의 인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는 자기파괴현상으로 나타난다. 알코올, 약물, 매춘부 모두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또한 유년기에 어머니로부터 거부된 사랑에 대한 결핍감과 인간 세계에서 단절된 불안심리가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는 삶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인간세계에서의 소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알코올, 약물과 같은 수단은 요조에게 있어서 「道化」와 같은 역할을 하며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인간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삶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자기파괴현상은 자살이다. 『人間失格』에서 요조는 두 번의 자살을 시도한다. 첫 번째는 카페의 여종업원 쓰네코와의 가마쿠라 정사사건이고 두 번째는 신뢰의 상징인 요시코가 강간당한 이후에 시도한 자살이다. 자살의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요조의 나약한 성격과 자신의 세상에 대한 무능력함이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순진무구한 신뢰심이 짓밟혀졌다는 사실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간세계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요조는 자

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세계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요조의 알코올과 약물, 자살과 같은 자기파괴현상에 대해 후쿠시마 아키라(福島 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인과 하녀에게 육보임을 당해」로 표현되는 성적 학대, 게다가 그 사실을 부모 형제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인간불신감 등, 트라우마에 가득 찬 유아기의 소유자였다. 그 외상체험으로 인해 소아기부터 이미 불면에 괴로워하고, 낮은 자존감과 무의식적 죄악감의 포로가 되어, 자살미수를 반복하고 또한 그것이 트라우마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청년기를 보냈다. 「道化」를 연기하는 《거짓된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과탄에 이르면 약물과 술에 빠졌다.

「下男下女に犯され」と表現されるような性的虐待、しかもそれを親兄弟にも訴えられなかった人間不信感など、トラウマに満ちた乳幼児期の持ち主であった。その外傷体験から、小児期から既に不眠に悩み、低い自尊感情と無意識的罪悪感の虜となり、自殺未遂をくり返してはまたそれがトラウマを深める結果になるという青年期を送った。「道化」を演じるという《偽りの自分》を生きることが破綻すると、薬物や酒に溺れていた。⁴⁶⁾

요조에게 보이는 알코올, 약물, 자살과 관련된 하류지향적인 자기파괴현상은 요조의 자의식의 비뚤어진 표출방법으로 거짓과 인간불신으로 가득 찬 인간세계에 대한 저항과 반발의 의식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요조는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였던 알코올과 약물에 의해 자신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의존증을 보이며 중독의 삶을 살다 廢人이 되고 만다. 자신에 대한 너무 깊은 성찰의 결과로 술과 약물, 정신병원에의 입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요조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3. 여성편력

『人間失格』은 ‘여러 여자들에 의해 파멸해 가는 남자의 이야기’⁴⁷⁾라고 할 수

46) 福島 章, 「自殺学からみた太宰治」, 『国文学 解釈と鑑賞』第69卷9号, 至文堂, 2004, p.113.

있을 만큼 요조의 여성편력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수기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여러 여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요조의 이야기가 진행되며 그의 모든 갈등의 원인은 어머니라는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요조를 이해하는데 그의 여자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머리말」에서 어린시절 요조가 여자들에 둘러싸여 찍은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그의 주변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남자들보다 여자들과의 관계형성이 훨씬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영향으로 그에게는 ‘여자다루기 고수의 냄새’ 즉, 모성애를 자극하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아 많은 여자들로부터 자신이 의도한 바 없는 호의를 받게 된다.

나는 극도로 소극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모든 일들이 전부 일방적인, 그 이상의 진척이라곤 전혀 없는 일이었지만, 뭔가 여자들의 넋을 빼앗는 분위기가 내 몸 어딘가에 감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홀린다거나 꼬신다거나 하는, 그저 웃자고 지껄이는 농담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自分が極度に消極的なので、いづれも、それつきの話で、ただ斷片、それ以上の進展は一つもありませんでしたが、何か女に夢を見させる霧圍氣が、自分のどこかにつきまとつてゐる事は、それは、のろけだの何だのといふいい加減な冗談でなく、否定できないのでありました。(p.431)

요조에 대한 여자들의 일방적인 호의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에서 유래하는 자기집착과 자기애(나르시즘)의 감정이 여자들의 넋을 빼앗는 묘한 분위기로 나타나 여자들로부터 본능적이고 아무런 이해타산 없는 진심어린 호의를 베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자라온 성장배경과 아버지의 부재가 그를 남자보다 여자 쪽에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여자들의 심리, 취향을 잘 파악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자에 대한 친밀감의 한편에는 여자라는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함으로 다가온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요조의 생각을 알 수 있다.

47) 三好行雄, 『太宰治必携』, 學燈社, 1981, p.51.

내게는 남자보다 여자가 몇 배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가족 중에는 여자들의 수가 남자보다 많고, 또 친척 중에도 여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앞서 말한 그 ‘범죄’를 저지른 식모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여자들하고만 놀며 자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땐 사실 살얼음을 밟는 기분으로 그 여자들과 어울렸던 겁니다. 나는 거의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自分には、人間の女性のはうが、男性よりもさらに數倍難解でした。自分の家族は、女性のはうが男性よりも數が多く、また親戚にも、女の子がたくさんあり、またれいの「犯罪」の女中などもゐまして、自分は幼い時から、女ばかり遊んで育つたといつ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つてゐますが、それは、また、しかし、實に、薄氷を踏む思ひで、その女ひとたちと附合つて來たのです。ほとんど、まるで見當が、つかないのです。(pp.418~419)

요조의 이러한 생각은 남자들과의 관계보다 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세계를 쳐다보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세계 일반의 난해함을 여자에 집약시킴으로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⁸⁾

한편 요조와 여자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요조의 자발적인 의지에서가 아닌 여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호의를 받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조가 사랑에 대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 배우지 못한 데에 기인할 수 있다.

시마자키 토시키키(島崎敏樹)와 후쿠미즈 야스로우(福水保郎)는 요조의 일방적인 사랑의 수용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어린시절의 애정생활은 타인, 또는 타인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뿐이었다. 유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상호적인 사랑을 나누는 부모는 결과적으로 그에게 냉담하였다. 그러한 육친의 사랑의 결여가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알고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에서 보여 지듯이 그의 냉담한 성격을 철저한 형

48) 安藤宏, 「太宰文学における〈女性〉」、『国文学 解釈と感賞』第64卷9号, 至文堂, 1999, p.19.

태로 완성시키지는 않았을까. 그는 일생동안 근본적으로는 타인의 사랑에는 심한 탐욕을 보이지만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는 철저한 무능력자였다.

彼の小さい頃の愛情生活は、他人、もしくは他人に近い人達から受ける無條件な一方交通的な愛だけであった。乳児において唯一の相互交通的な愛を營める父母は、結果的には彼に冷淡であった。このような肉親の愛の缺如が、彼が後に告白しているように人に好かれることは知っていても、人を愛する好能力において欠けているところがあるようでした、という彼の冷酷な性格を徹底した形のものに作り上げてしまつたのではなかろうか。彼は終生、根本的には、他人の愛には激しい貪慾を示したが、他人を愛することには徹底した無能力者であった。49)

부모와의 상호교환적인 사랑을 배우지 못한 요조는 자발적인 의지로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여자로부터 일방적인 호의를 받는 연애와 신뢰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신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만큼 남을 사랑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미숙한 일면을 보인다.

한편 인간세계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과 위화감을 느끼는 요조지만 매춘부에게는 다음과 같이 친화감을 보인다.

내게는 매춘부란 인간도 여성도 아닌, 백치나 미치광이처럼 보여 그 품안에서 오히려 안심하고 폭 잠들 수 있었습니다. (중략) 나는 그 백치나 미치광이 같은 매춘부들에게서 마리아의 후광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自分には、淫賣婦といふものが、人國文學間でも、女性でもない、白痴か狂人のやうに見え、そのふところの中で、自分はかへつて全く安心して、ぐつすり眼る事が出来た。(中略) 自分には、その白痴か狂人の淫賣婦たちに、マリアの圓光を現實に見た夜もあつたのです。(p.430)

매춘부가 자신과 같은 인간세계의 낙오자이며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동질감으로 그들에게서 마리아와도 같은 편안함과 모성결핍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스스로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요조가 매춘부들에게 느낀 친화감 또한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은 언제나 고독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그러던 중에 긴자의 카페 여종원업인 쓰네코에게 자신과 같은 외로움과 동질

49) 島崎敏樹・福水保郎, 「精神病理学と文学研究法 -太宰 治-」,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太宰治 I』, 有精堂, 1987, p.230.

감을 느끼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 쓰네코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외로움에 한순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공포와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말의 행복한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그 행복한 해방감을 상처받기가 두려워 다시 고독한 자아로 돌아간다. 그 후 자신의 나약한 성격과 세상에 대한 무능력함으로 존재이유를 상실한 요조는 세상살이에 지친 쓰네코와 함께 가마쿠라 정사사건을 일으키지만 여자는 죽고 요조만 살아남는다.

가마쿠라 정사사건 후, 여자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둥서방과 같은 생활(男めかけみたいな生活)’이 시작된다. 딸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잡지사의 여기자 시즈코와 교바시의 스탠드바 마담에게 기대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생활 무능력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때 부정함을 모르는 처녀성, 신뢰의 화신인 요시코와 결혼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세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상과의 한판 대결을 결심한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날 밤, 의심할 줄 모르는 신뢰심 때문에 요시코는 하찮은 장사치에게 더럽혀지고 만다. 자신을 구원해 줄 것만 같았던 요시코의 순진무구한 신뢰심이, 그 신뢰심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요시코의 몸이 짓밟혀지고, 결국 요조와 세상과의 한판 대결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그때 나를 덮친 감정은 분노도 아니었고, 혐오도 아니었으며, 슬픔도 아닌,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중략)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에 자신을 잃고, 또다시 사람에게 대해 경계하게 되어, 세상살이에 대한 일말의 기대, 기쁨, 타인과의 공감에서 영원히 떨어졌습니다.

そのとき自分を襲った感情は、怒りでも無く、嫌悪でも無く、また、悲しみでも無く、もの凄まじい恐怖でした。(中略) その夜からはじまり、いよいよ、すべてに自信を失ひ、いよいよ、ひとを底知れず疑ひ、この世の営みに對する一さいの期待、よろこび、共鳴などから永遠にはなれるやうになりました。(p.494)

아무도 의심할 줄 모르는 순진무구한 신뢰심 때문에 요시코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은 요조에게 인간세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면서 요조는 더 이상 인간의 삶

에 의미를 두지 못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人間失格』은 요조가 실로 많은 여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여자의 신뢰심으로 인해 파멸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의 근본에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기소외의식이 있다. 이 소외의식은 요조에게 있어 여자들에 대한 친화로 나타나지만 여자들을 알면 알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존재이고 공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여자들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모성애를 되찾고 싶은 간절한 희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V. 自意識에서 본 「世間」

요조가 「世間」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자이는 요조를 인간세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으로 설정한다. 요조의 자의식 속에 있는 자기소외의식을 바탕으로 그를 인간세계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설정함으로써 「世間」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과 저항의식을 나타내려는 다자이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세계의 이방인인 요조의 자의식을 통해 인간불신과 세상의 부조리를 들추어 진정한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

『人間失格』에는 「實世界」와 「想世界」라는 두 가지 의미의 세계가 존재한다. 「實世界」와 「想世界」란 말은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가 쓴 용어인데,⁵⁰⁾ 『人間失格』에 限定시켜 말한다면 돈, 세상과 같은 實用과 有用의 용도로 쓰이는 概念의 세계가 「實世界」에 해당되고 여기에 대립되는 概念의 세계가 「想世界」이다.⁵¹⁾

『人間失格』에 나오는 「世間」이란 세상 일반, 인간세계로 이것은 곧 「實世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人間失格』의 주인공 요조는 「世間」에 속하지 못하는 「想世界」의 인물로 묘사된다. 그가 자신을 「想世界」의 인물로 설정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세계와의 연결통로인 모성애의 부재,

50)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北村透谷』, 有精堂, 1972, p.256에서 기타무라 도코쿠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상세계와 실세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51) 朴世榮, 「太宰治의 『人間失格』 分析」, 『國際大學論文輯』 第12輯, 1984 p.153. (재인용)

인간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아버지로부터의 공포감, 가족 안에서의 고독과 소외가 자의식의 바탕이 되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人間失格』의 구도는 「想世界」를 지향하는 인물 요조와 「實世界」의 인간들과의 이분적 구도라고 할 수 있으며 「世間」, 즉 「實世界」에서 소외된 주변인적 관점에서 「世間」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을 위해 주인공 요조를 인간세계에 속하는 인물이 아닌 철저한 이상세계, 즉 「想世界」의 인물로 설정한다. 「제 1수기」에서 요조는 ‘내게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보통의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想世界」에 사는 인물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세계의 實利的, 實用的인 것에 대한 요조의 인식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으로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정거장의 다리가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선로를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정거장의 구내를 외국의 유원지처럼 재밌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 설치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상당히 오랫동안 내 머리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략) 또한 나는 어렸을 때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란 걸 보고 것 역시 실용적인 필요에서 고안된 게 아니라, 땅 위를 달리는 차보다 지하를 뚫고 달리는 차에 타는 편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놀이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중략) 요나 베개 커버, 이불 커버를 불필요한 장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주 실용적인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스무 살 가까이 됐을 때야 비로소 깨닫고 인간의 알뜰함에 감탄하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自分は停車場のブリツヂを、上つて、降りて、さうしてそれが線路をまたぎ越えるために造られたものだといふ事には全然氣づかず、ただそれは停車場の構内を外國の遊戯場みたいに、複雑に楽しく、ハイカラにするためののみ、設備せられてあるものだとばかり思つてゐました。しかも、かなり永い間さう思つてゐたのです。(中略) また、自分は子供の頃、繪本で地下鐵道といふものを見て、これもやはり、實利的な必要から案出せられたものではなく、地上の車に乗るよりは、地下の車に乗つたほうが風がはりで面白い遊びだから、とばかり思つてゐました。(中略) 敷布、枕のカヴァ、掛蒲團カヴァを、つくづく、つまらない裝飾だと思ひ、それが安外に實用品だつた事を、二十歳ちかくなつてわかつて、人間のつましさに暗然とし、悲しい

思ひをしました。(pp.401~402)

어린 시절 보았던 정거장의 다리가 외국의 서커스처럼 재미있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장식품이며 지하철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놀이이고 베개커버나 이불커버가 실용적인 물건이었다는 사실에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실용차원의 생활과 사물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나타낸다.

요조가 바라보는 「世間」에는 유희와 실용이라는 二項對立이 있다. 요조의 행복의 관념은 유희와 놀이인데 반해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념은 실용, 실리에 있다는 차이점은 그를 불안에 떨게 한다.⁵²⁾ 요조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대부분이 실리적이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실용품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둘러싸여 그다지 부자연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리적, 실용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인간세계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요조의 空腹感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나는 '배고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먹고 사는 데에 걱정 없는 집에서 자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유치한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 '배고프다'라는 감각이 어떤 건지 확실히 실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また、自分は、空腹といふ事を知りませんでした。いや、それは、自分が衣食住に困らない家に育つたといふ意味ではなく、そんな馬鹿な意味ではなく、自分には「空腹」といふ感覺はどんなものだか、さっぱりわからなかつたのです。(p.402)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내 귀에는 단지 듣기 싫은 험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그런 미신은 내게 언제나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めしを食べなければ死ぬ、といふ言葉は、自分の耳には、ただイヤなおどかししか聞えませんでした。その迷信は、しかし、いつも自分に不安と恐怖を與へました。(p.403)

空腹感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은 요조가 「想世界」의 인물이라는 점을 뒷받

52) 勝原晴希, 「『人間失格』-地上の聖性」,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第47卷14号, 學燈社, 2002.12, p.99.

침해준다. 모든 것의 가치기준을 유희와 놀이로 파악하고 있는 요조에게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迷信일 수밖에 없다.’⁵³⁾ 배고픔의 감각을 실감하지 못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기 싫은 협박이나 미신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아주 원초적인 욕구마저 느낄 수 없고 ‘밥을 먹는다’라는 행위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요조는 ‘밥을 먹는다’라는 행위로 대표되는 인간 생활의 일상과 그 일상의 반복에 의문을 품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사회부적격에 고뇌하며 인간의 삶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공복감과 같은 맥락인 물질에 대한 所有慾 역시 느끼지 못한다. 아버지가 도쿄에서 불일을 보고 돌아오실 때 사울 선물에 대해 묻는 장면에서 요조는 우물쭈물 대답도 못하고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뭘 받고 싶으냐고 물으면 난 그 즉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은 기분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래도 좋아, 어차피 이 세상엔 날 즐겁게 해주는 것 따윈 없어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발동합니다.

何が欲しいと聞かれると、とたんに、何も欲しくなくなるのでした。どうでもいい、どうせ自分を楽しくさせてくれるものなんか無いんだといふ思ひが、ちらと働くのです。(p.407)

물질에 대한 所有慾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요조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거부하고 그에 反하는 無慾의 세계, 즉 「想世界」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인간세계의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소유함으로써 채워지는 자기만족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名譽慾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존경 받는다’라는 인간 세계의 관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심한 거부감을 보인다.

나는 그곳에서 거의 존경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존경 받는다’는 관념 또한 나를 상당히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인간을 속이다가 전지전능한 에게 간파되어, 산산조각 나고, 죽기보다 더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

53) 勝原晴希, 「『人間失格』-地上の聖性」,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第47卷14号, 學燈社, 2002.12, p.102.

그것이 ‘존경 받는다’는 상태에 대해 내가 내린 정의입니다.

自分は、そこでは、尊敬されかけてゐたのです。尊敬されるといふ觀念もまた、甚だ自分を、おびえさせました。ほとんど完全に近く人をだまして、さうして、或るひとりの全知全能の者に見破られ、木つ葉みぢんにやられて、死ぬる以上の赤恥をかかせられる、それが、「尊敬される」といふ状態の自分の定義でありました。(pp.409~410)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인간 세계의 관념에 지배 받는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존경받는다’라는 자존감은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요조는 그러한 관념에 반하는 인물이다. 인간 세계의 관념과 상식을 모르고 자신만의 공간에 고립된 존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性に 관한 의식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요조가 하인들에게 당했던 性的虐待는 트라우마로 작용하여性に 관한 관념을 왜곡시킨다. 요조는 항상 여자들에게 수동적인 애정의 대상이 될 뿐이며 사랑과성에 대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다. 그에게性이라는 것은 원초적인 본능과 쾌락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모성애에 대한 결핍감을 채우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성에 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가츠하라 하루키(勝原春希)는 다음과 같이 요조가 지향하는 세계는 바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한다.

근본적으로 소유욕이 적고 ‘공복’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욕망도 느끼지 못한다. (중략) 이러한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세계는 유토피아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실리·실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소유욕·식욕·성욕이라는 욕망이 없거나 희박하여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없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고 다정하며 냉담한 의지를 갖지 않는 세계. 살아있는 그 자체가 목적적이고 기쁨이라는 의미에서 놀이로 가득 찬 세계.

「もともと所有慾といふものは薄く」、「空腹」がわらないのと、同様に、性的慾望も稀薄のおうである。(中略) こうした存在が受け入れられる世界は、ユートピアでしかない。だれもが實利・實用のことを考えず、所有慾・食慾・性慾といった慾望は無もしくは稀薄で、「人が人を押しつけ」ることのない世界。人々は互いに奉仕しあい、優しく、「冷き意志」を持たない世界。生きることそれ自體が目的であり喜びであるという意味で、「遊び」に満ちた世

界。54)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요조라는 인물은 인간 세계의 실리·실용과 대립되는 비현실적, 반실리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 소유욕이 없는 無慾의 세계인 유토피아, 즉 「想世界」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人間失格』을 도식화하면 「想世界」의 인물인 요조와 요조를 둘러싼 「實世界」와의 대립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즉 「想世界」의 인물인 요조가 「世間」, 즉 「實世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구조로서 「實世界」에 살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이 결여된 요조의 모습을 통해 「想世界」의 인물상을 염원한 것이라고 본다.⁵⁵⁾

그러면 요조가 바라보는 「實世界」, 즉 「世間」은 어떤 모습일까. 『人間失格』을 요조의 「世間」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世間」은 인간 불신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제 1 수기」에서는 요조가 어렸을 적 식모와 하인들에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당하고서도 부모에게 조차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인간불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에게 호소한다. 나는 그런 소통 수단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을 해도, 어머니께 일러도 주위 사람들에게 청해 봐도, 정부에 탄원해도, 결국엔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퍼뜨리기 좋아하는 이야깃거리로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가지 않을까.

틀림없이 편파적인 부분이 있는 건 뻔한데, 결국 인간에게 호소하는 건 소용없는 것이다. 내겐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가슴속에 묻어둔 채 다시 우스운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 외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거야? 얼씨구, 네 녀석이 언제부터 그렇게 기독교 신자가 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구도자의 몫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조롱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서로의 불신 속에서 야훼도 뭐도 염

54) 勝原晴希, 「『人間失格』-地上の聖性」,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第47卷14号, 學燈社, 2002.12, p.102.

55) 朴世榮, 「太宰治의 『人間失格』 分析」, 『國際大學論文集』第12輯, 1984 p.155.

두에 두지 않고, 태연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人間に訴へる、自分は、その手段には少しも期待できませんでした。父に訴えても、母に訴えても、お巡りに訴へても、政府に訴へても、結局は世渡りに強い人の、世間に通りのいい言ひぶんに言ひまかれるだけの事では無いかしら。

必ず片手落のあるのが、わかり切つてゐる。所詮、人間に訴へるのは無駄である。自分はやはり、本當の事は何も言はず、忍んで、さうしてお道化をつづけてゐるより他、無い氣持なのでした。

なんだ、人間への不信を言つてゐるのか?へえ?お前はいつクリスチャンになつたんだい、と嘲笑する人も或ひはあるかも知れませんが、しかし、人間への不信は、必ずしもすぐに宗教の道に通じてゐるとは限らないと、自分には思はれるのですけど。現にその嘲笑する人をも含めて、人間は、お互ひの不信の中で、エホバも何も念頭に置かず、平氣で生きてゐるではありませんか。(pp.411~412)

요조는 아버지가 속한 정당의 연설회가 끝난 후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다시 한 번 인간불신을 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쪽도 어떤 상처도 남기지 않아, 겉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고, 서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한, 기막히게 완벽한, 그야말로 결백하고, 명랑한 불신의 사례들이 인간 생활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互ひにあざむき合つて、しかもいづれも不思議に何の傷もつかず、あざむき合つてゐる事にさへ氣がついてゐないみたいな、實にあざやかな、それこそ清く明るくほがらかな不信の例が、人間の生活に充満してゐるやうに思はれます。(p.412)

요조가 바라보는 「世間」은 서로를 속이고 믿지 못하면서도 죄책감커녕, 겉으로는 태연해하면서, 서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기만으로 가득 찬 불신의 세계이다. 이런 인간불신의 예는 현실에서 누구든지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인간세계의 관습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무시하며 지나쳐버린다. 현실의 삶에서는 허위가 있으며 위선이 있고 기만과 오해가 있으며 인간 상호간의 어리석은 감정이입이 있지만 이런 사실이야말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원만히 유지해나

가는 방법이라고 쉽게 간과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통렬한 인간 불신에 대한 비판은 요조의 外界인식의 방법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가 현실을 벗어난다는 心情으로 바라봄으로서 생긴 결과이다.⁵⁶⁾ 즉 요조가 스스로를 인간세계의 밖에 존재하는 「想世界」의 인물로 설정하고 「實世界」에 만연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 너무 깊숙하게 성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요조는 인간불신에 괴로워하면서도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보인다. 인간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인간을 향한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것에 요조의 고뇌가 있다. 그가 일생을 광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인간세계에 만연한 인간불신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조는 「世間」의 상징적 인물로 묘사되는 아버지, 호리키(堀木), 히라메(ヒラメ)를 통해 「世間」을 인식해 간다.

아버지는 「世間」의 모습이며 「世間」으로의 인도자이다. 어린시절 아들과 아버지의 중개자 역할인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라는 존재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아버지와 「世間」에 대한 이미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요조에게 「世間」은 두려움과 공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진다. 또한 요조에게 아버지는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다가간다. 권력과 힘의 상징인 아버지를 통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라지는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世間」의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화가라는 꿈을 좌절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요조가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향해 새로운 길을 열어갈 가능성을 제거하여 「世間」에 대한 불가항력과 무능력함을 절실히 실감하게 하는 존재로 「想世界」의 인물인 요조가 「實世界」에서 겪는 모든 苦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조가 바라본 「世間」은 아버지의 이미지와 동일시되는 공포와 두려움, 권력과 힘으로 가득 찬 세상이며 요조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식하게 되는 곳이다.

요조는 아버지로 인해 화가로서의 꿈이 좌절되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지만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화가에의 꿈을 버리지 못하여 아버지 몰래 미술

56) 島崎敏樹·福水保郎, 「精神病理学と文学研究法 -太宰 治-」, 『日本文学研究叢書 太宰治 I』, 有精堂, 1987, p.235.

학원을 다니다가 호리키(堀木)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호리키는 ‘도시의 건달(都會の與太者)’로 요조를 「世間」의 어두움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요조와 마찬가지로 ‘인간세계에서 遊離되어 목적지를 모르고 헤매는 점’에서 같은 부류이나 ‘「道化」를 의식하지 않고 행하며 그 행동의 비참함을 모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요조는 그를 통해 술, 담배, 매춘부를 알게 되고 조금은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호리키는 냉정하고 교활한 에고이즘의 소유자로 적당히 남을 이용하고 자신은 전혀 손해 보는 일 없이 노련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實世界」의 인물이다. 호리키에게 있어서 타인은 자신이 이용할 대상이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그는 요조에게 친구라는 명목으로 다가가지만 인간불신을 한층 가중시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호리키가 보여주는 인간의 냉정하고 교활한 에고이즘, 인간소외, 인간불신의 모습은 요조에게 「世間」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

또한 히라메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아버지의 이미지와 함께 인간세계의 속물이라는 것을 다음의 묘사에서 알 수 있다.

히라메의 말투는, 아니 세상 사람들의 말투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어딘가 뚜렷하지 않고 탁한 구석이 있는데,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파놓고 있는 듯한, 미묘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불필요한 경계와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술책과 흥정에 나는 언제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되어, 끝내는 ‘우스운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또는 아무 말 없이 상대의 의견을 수긍하여, 모든 걸 네 뜻대로 하라는, 이른바 패배주의자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중략) 히라메의 불필요한 경계,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허식, 의식적인 걸치레에 왠지 음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ヒラメの話方には、いや、世の中の全部の人の話方には、このやうにややこしく、どこか朦朧として、逃腰とでもいつたみみたいな微妙な複雑さがあり、そのほとんど無益と思はれるくらいの嚴重な警戒と、無數といつていいくらの小うるさい駈引とには、いつも自分は當惑し、どうでもいいやうといふ氣分になつて、お道化で茶化したり、または無言の首肯で一さいおまかせといふ、謂はば敗北の態度をとつてしまふのでした。(中略)ヒラメの不必要な用心、いや、世の中の人たちの不可解な見榮、おていさいに、何とも陰鬱な思ひをしました。(pp.456~457)

이와 같이 히라메는 불필요하게 타인을 경계하고 허식과 의식적인 걸치레로 가득 찬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세계의 인색함과 위선, 권력을 추종하는 「世間」의 대표적 인물로 요조에게 추악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호리키, 히라메와의 관계 속에서 요조에게 보여지는 「世間」은 권력과 힘의 원리가 작용하며 인색함, 위선, 천함, 추악함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소외되어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비열함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에서 요조는 「世間」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인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 과정에서 「世間」은 다음과 같이 호리키와 히라메라는 구체적인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요조는 「世間」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

세상이란 도대체 무얼 말하는 걸까요. 인간들의 집단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 그 세상이란 것의 실체가 있는 걸까요. 그 실체가 뭐가 됐든, 강하고 엄하고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였지만, 호리키에게 그런 소릴 듣고 나니 문득 “세상이란 건 널 두고 하는 말 아니야?”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와

世間とは、いつたい、何の事でせう。人間の複數でせうか。どこに、その世間といふものの實體があるのでせう。けれども、何しろ、強く、きびしく、こはいもの、とばかり思つてこれまで生きて來たのですが、しかし、堀木にさう言はれて、ふと、「世間といふのは、君ぢやないか。」といふ言葉が、舌の先まで出かかつて、(p.471)

세상. 나도 이제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싸움에서, 나아가 바로 그 자리의 싸움에서, 거기서 이기면 되는 것이며,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 존재로, 노예조차 노예 나름의 비굴한 양갈음을 하는 법이니 인간과의 ‘한판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는 생존해 나갈 길이 없고, 대의명분 따위를 내걸고 이루고자 노력한 목표는 반드시 개인으로 귀결되고, 개인을 던고 일어난 다음에도 다시 개인을 향하므로 세상의 불가사의는 개인의 불가사의고 대양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을 말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나니, 난 세상이란 큰 바다의 환영을 두려워하는 버릇에서 약간은 해방되어, 이전 만큼 이것저것 오만가지 일에 걱정하는 일 없이, 눈앞에 닥친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익히게 됐던 겁니다.

世間、どうやら自分にも、それがぼんやりわかりかけて来たやうな氣がしてゐました。個人と個人の争ひで、しかも、その場の争ひで、しかも、その場で勝てばいいのだ、人間は決して人間に服従しない、奴隷さへ奴隷らしい卑屈シツペがへしをするものだ、だから、人間にはその場の一本勝負にたよる他、生き伸びる工夫がつかぬのだ、大義名分らしいものを稱へてゐながら、努力の目標は必ず個人、個人を乗り越えてまた個人、世間の難解は、個人の難解、大洋は世間でなくて、個人なのだ、と世の中といふ大海の幻影におびえる事から、多少解放されて、以前ほど、あれこれと際限の無い心遣ひする事なく、謂はば差し當つての必要に應じて、いくぶん圖々しく振舞ふ事を覺えて来たのです。(p.475)

요조는 「世間」을 막연하게 강하고 엄하고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으나 「世間」이라는 것이 ‘결국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철학적인 결론에 귀착하자 희미하게나마 「世間」에 대한 윤곽을 잡는다.

여기서 「世間」은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世間」이라는 큰 바다의 幻影을 두려워하는 버릇에서 벗어나 눈앞에 닥친 필요에 따라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요조의 이런 생각이야 말로 하나의 幻影에 지나지 않는다. 요조가 ‘「世間」은 개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가마쿠라 정사사건 이후, 호리키와 히라메가 「世間」의 意思를 體現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호리키와 히라메의 소멸이 「世間」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리키와 히라메가 「世間」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世間」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과 개인과의 한판 대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世間」에 대한 난해가 곧 개인에 대한 난해라고 할 수 없다. 「世間」이란 사회적 공동규범성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요조의 착오가 있다고 하겠다.

요조는 세상이란 것의 실체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지만 그래도 그에게 인간이란 역시 두려운 존재이다. 그러나 요시코의 부정함을 모르는 처녀성, 순진무구한 신뢰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다음과 같이 「世間」과의 한판 대결을 결심하게 된다.

결혼해서 아무리 큰 슬픔이 날 덮친다 해도 상관없다. 큰 영화를, 내 평생 단 한번만이라도 좋아. 처녀성의 아름다움이란 어리석은 시인의 달콤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그건 이 세상 속에 살아 존재하는 거였어. 이 아이와 결혼해, 봄이 오면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푸른 잎들이 소용돌이치는 숲을 보러 가야지. 나는 내 관념 속에 있던 그 ‘한판 대결’을 결심하고, 그 꽃을 훔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시다.

結婚しよう、どんな大きな悲哀がそのために後からやつて來てもよい、荒つぼいほどの大きな歡樂を、生涯にいちどでいい、處女性の美しさとは、それは馬鹿な詩人の甘い感傷の幻に過ぎぬと思つてゐたけれども、やはりこのよの中に生きて在るものだ、結婚して春になつたら二人で自轉車で青葉の瀧を見に行かう、と、その場で決意し、所謂「一本勝負」で、その花を盗むのにためらふ事をしませんでした。(p.484)

요조는 드디어 불신으로 가득 찬 인간세계의 끝에서 때 묻지 않은 진실함을 찾는다. 부정함을 모르는 처녀성, 순진무구한 신뢰심은 「世間」, 즉 「實世界」에 존재하는 「想世界」의 개념으로 절대적·이상적인 가치이다. 또한 요조가 「世間」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진실된 인간의 삶’에 대한 해답이고 「世間」에 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조는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성과 조금도 인간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신뢰의 천재인 요시코와의 결혼을 통해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자신도 비로소 「世間」에서 구원과 희망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자신이 「世間」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요시코의 순진무구한 신뢰심으로 인해 그녀의 몸이 짓밟히자, 세상에 대한 일말의 기대, 기쁨, 타인과의 공감에서 영원히 멀어지고 요조에게 「世間」은 더욱더 커다란 불신과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 된다.

요조는 「世間」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판 대결로 끝나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하면서 「想世界」의 인물인 자신은 「實世界」의 「世間」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고 실격자일 수밖에 없다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결국 「世間」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이제까지의 모든 고뇌의 대상을 상실한 채 다음과 같이 행복도 불행도 없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만이 「世間」의 진리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젠 내겐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이른바 ‘인간’ 세상에서 단 하나 진리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은 스쳐 지나 갑니다.
いまは自分には、幸福も不幸ありません。
ただ、一さいは過ぎていきます。
自分がいままで阿鼻叫喚で生きて來た所謂「人間」の世界に於いて、たつた一つ、眞理らしく思はれたのは、それだけでした。
ただ、一さいは過ぎていきます。(p.510)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조의 「世間」에 대한 인식에는 자신이 인간세계의 이방인이라는 자기소외의식이 바탕에 있었다. 이 소외의식으로 자신을 「想世界」의 인물로 규정하고 「實世界」, 즉 「世間」에서 ‘무엇이 진실된 인간의 삶인가’라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世間」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았다. 「世間」은 곧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라는 결론 끝에 요시코와 결혼함으로써 「世間」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자신도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지만 오히려 자신의 추구했던 절대적 가치인 요시코의 순진무구한 신뢰심으로 인해 그녀의 몸이 더럽혀지자 요조는 더 깊은 인간불신과 두려움을 안고 「世間」을 바라보게 되었다. 결국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과 자신의 존재감마저 잃은 요조에게 남은 것은 허무뿐이고 인간세상의 행복도 불행도 모두 그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요조의 자의식을 중심으로 『人間失格』을 고찰해 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요조가 인간세계의 실격자로 살아야 했던 바탕에는 그의 자라온 환경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대가족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외로움과 소외감만을 주는 가정환경,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감과 불안감, 「世間」을 대표하는 아버지로 부터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요인, 이런 요인들이 요조의 자의식의 바탕을 이루고 그로 인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

특수한 성장배경을 통해서 형성된 자의식은 「世間」에서 「道化」, 복잡한 여자관계, 자기파괴로 표출되었다. 인간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괴로워하면서도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요조는 인간세계에 대한 간절한 희구로 「道化」라는 인간을 향한 필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道化」로 위장한 요조의 모습은 거짓된 것이고 가면 속에 감춰진 자아는 점점 ‘진실된 인간의 모습’과는 멀어져간다. 다케이치의 ‘여자들이 흘릴 것이다’라는 예언대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여자들의 호의를 받게 되고 잃어버린 모성애를 찾기 위한 여자들과의 복잡한 관계가 계속된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요조를 압박하고 일시적인 해방감을 위해 의존한 알코올과 약물은 중독의 삶으로 그를 내몰아 부끄러운 생애를 살게 한 원인이 되었다.

특수한 성장배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자의식으로 그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자신과 「世間」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과 「世間」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自意識의 과잉현상을 일으켰다. 이러한 자의식의 과잉현상으로 자신과 「世間」에 대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요조의 고뇌가 시작된다.

요조의 자의식 속에는 「想世界」와 「實世界」의 二分的 구도가 존재한다.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자기소외의식으로 자신을 비현실적, 반실리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 소유욕이 없는 無慾의 세계인 「想世界」의

인물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이런 「想世界」에 대립되는 「實世界」, 즉 「世間」을 이방인의 입장에서 인식하게 된다. 요조에게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난해함으로 다가오고 「實世界」, 즉 「世間」은 서로를 기만하고 속이면서도 모른 척하는 인간불신의 一面만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世間」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의 끝에 결국 「世間」이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요시코의 순진무구한 신뢰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조리와 불신으로 가득 찬 인간세계와의 한판 대결을 결심한다. 그러나 자신이 절대적 가치라고 여겼던 요시코의 신뢰심으로 인해 그녀가 하찮은 상인에게 유린당하고 요조에게 「世間」은 더욱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 더 이상 인간세계에 희망을 갖지 못한 그가 도착한 곳은 정신병원이었고 「世間」의 상징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제까지 「世間」과 고군분투하던 의미를 상실하고 요조에게는 광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인간실격자라는 汚名만이 남게 되었다.

인간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조의 문제점은 자의식의 과잉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단히 그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기 속의 또 다른 자기, 즉 자의식의 과잉으로 「世間」은 항상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요조는 지나치게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생기는 고뇌와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당연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절실한 염원은 이를 수 없었고 결국 그 자신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인간 실격자의 숙명을 보여주었다.

또한 요조는 사회와 가정에서 낙오되어 자신과 「世間」과의 관계를 유지해갈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이고 어느 것 하나 지니지 않은 패배자로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았다. 이는 곧 요조가 인간세계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여 허위와 위선, 권력과 힘의 원리를 지향하는 인간세계에 저항함으로써 인간세계의 부조리를 고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과 자신의 존재감마저 잃은 요조에게 남은 것은 허무뿐이고 인간세상의 행복도 불행도 모두 그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다자이는 작품 『人間失格』을 통해 자신의 내적 진실과 결여감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인간세계의 부조리, 추악함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자 했던 요조의 희구는 곧 다자이의 희구이고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사회적 관념과 개인적인 욕망에 자신을 맡겨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요조라는 비극적 인간상을 보여줌으로서 참된 삶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 理想世界의 절대적인 가치 추구를 통해 현실세계에서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상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참된 자의식의 확립과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텍스트】

太宰治, 『太宰治全集第九卷』, 筑摩書房, 1980

1. 한국문헌

【단행본】

김순진·김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학지사, 2003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06

홍준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아난케, 2005

로버트 M.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제이북스, 2002

【논문】

김수영, 「데이빗 매릿극 연구:트라우마(Trauma)로 인한 인간관계의 좌절과 극복」,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김영관,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소설의 모순구조 연구」, 日語日文学研究 vol.28 No.1, 1996

박세영,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문학의 연구 -상실의 양상과 그 극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2

박세영, 「太宰治의 「人間失格」 분석」, 國際大學論文集 第12輯, 1984

박재욱, 「가정환경의 심리적 요인과 자아개념 하위요인과의 관계」, 학생지도연구, 1983

신현선, 「太宰治문학 속의 모성추구 고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이숙연,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인간실격(人間失格)』」, 일본근대문학산책 vol.1999 No.5, 1999

하은정, 「다자이 오사무의 罪意識에 대한 考察」,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한정선, 「太宰治와 데카당스 -후기작품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学第12輯, 2001

2. 일본문헌

【단행본】

- 饗庭孝男, 『鑑賞日本現代文学21, 太宰治』, 角川書房, 1981
- 安藤 宏, 『太宰治 弱さを演じるということ』, ちくま新書, 2002
- 奥野健男, 『太宰治研究 I その文学』, 筑摩書房, 1982
- 奥野健男, 『太宰治論』, 新潮文庫, 1984
- 長部日出雄, 『太宰治』, 小学館, 1995
- 小林利裕, 『太宰治』, 近代文芸社, 1995
- 三枝康高, 『太宰治とその周辺』, 有信堂, 1975
- 相馬正一, 『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 太宰治』, 新潮社, 1983
- 相馬正一, 『若き日の太宰治』, 津軽書房, 1991
- 關井光男, 『太宰治の世界』, 冬樹社, 1977
- 太宰治, 『太宰治全集第一卷』, 筑摩書房, 1980
- 太宰治, 『太宰治全集第二卷』, 筑摩書房, 1981
- 「一冊講座」編集部編, 『太宰治』, 有精堂, 1983
- 鶴谷憲三, 『(Spirit) 太宰治 : 作家と作品』, 有精堂, 1994
-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 『日本文学研究叢書 太宰治 I』, 有精堂, 1987
- 長谷川泉編, 『病跡からみた作家の軌跡』, 至文堂, 1983
- 三好行雄, 『太宰治必携』, 學燈社, 1981

【잡지】

-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太宰治」第47卷 14號, 學燈社, 2002
- 「国文学 解釈と鑑賞, 特集 太宰治の謎」第64卷 9号, 至文堂, 1999
- 「国文学 解釈と鑑賞, 特集 二十世紀旗手 太宰治」第66卷 4号, 至文堂, 2001
- 「国文学 解釈と鑑賞, 特集 太宰治とその死生觀」第69卷 9号, 至文堂, 2004

<ABSTRACT>

**The study of Dazai Osamu's 『Ningensikaku』
- Focusing on Yojo's Self-consciousness -**

Boo, Kyung-Hee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In this study, I considered personality disqualification laying stress on Yojo's self-consciousness, based on Gaigai's autobiographical novel.

In the personality disqualification, Yojo is essentially a stranger in a human's life. There was the lack of the home background of his environmental factor and sense of alienation from the scarcity of his parent's love in the background that he doesn't understand human life and has anxiety and fear about mundane. Also, Oedipus-complex and trauma which act as a inner background of Yojo's defect. The self-consciousness is based on this background and is expressed as buffoonery, self-destruction phenomenon and women relations. Yojo who was afraid of fear and dread about the human world but couldn't give up humanity provides buffoonery which is a service for humanity. Also, the back of maternal guidance was expressed as complex women relationships, Yojo lives on Alcohol and drug addiction to get out of anxiety and fear about humans.

The special background and the lack of love, the sense of alienation and fear are fastened on Yojo's self-consciousness and expressed as a self-consciousness surplus. As this surplus of self-consciousness, Yojo describes himself as a Utopia person who is different from the human world. There is an opposition composition inside of Yojo's self-consciousness. In there, Yojo is a person of 'Utopia' and 'the mundane world' is a feature of mundane that is full of mistrust and hypocrisy. After asking what's the mundane, it comes to a conclusion with a quarrel between the individuals. He was in the last hopes of mundane when Yojo got married with Yoshiko who symbolic of innocent reliance. He had more fear and distrust about mundane after she proved filthy. Finally, he became a madman with the death of his father who was a symbol of mundane.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blem of Yojo who was a disqualified person, resulted from the surplus of self-consciousness. Mundane is the object of anxiety and fear because of a self-consciousness surplus. And it couldn't be released from sufferings and troubles when you face up to your problems very directly. It is shown that the desire which would like to live respectably couldn't come true, the fate of the disqualified person.